

공직사회 언론 담론의 재구성 양상: 박근혜·문재인 정부 시기 의제와 결합 구조의 변화 분석*

송가영**

정지수***

〈目 次〉

I. 서론

IV. 분석결과

II. 이론적 배경

V. 결론

III. 연구 설계

〈요 약〉

본 연구는 2013년부터 2022년까지 빅카인즈(BigKinds) 뉴스 데이터를 활용하여 한국 언론에 재현된 공직사회 관련 담론의 시기별 변화 양상과 결합 구조를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은 공직사회 관련 뉴스 기사 1,105,749건이며, TF-IDF 분석, LDA 토픽모델링, PMI 기반 공출현 네트워크 분석을 결합하여 의제 수준, 프레임 수준, 구조 수준의 차이를 다층적으로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박근혜 정부 시기 언론 담론에서는 제도개혁 및 성과관리 관련 의제가 상대적으로 높은 현저성을 보인 반면, 문재인 정부 시기에는 코로나19 대응, 디지털 전환, 공정성 관련 의제가 상대적으로 빈번하게 재현되는 경향이 관찰되었다. 또한 시기별 특징 의제뿐 아니라 핵심 의제 간 결합 관계 역시 함께 변화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추가 분석 결과, 공정성 및 디지털 전환 관련 담론은 코로나19 이전부터 점진적으로 증가한 반면, 방역·위기대응 담론은 코로나19 이후 급격히 강화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또한 일부 핵심 담론 차이는 코로나19 관련 어휘 제거 이후에도 유지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공직사회 관련 언론 담론이 기존 제도개혁 의제가 단순히 대체되는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정책·사회적 의제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점진적으로 재구성되는 양상으로 나타날 가능성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공직사회 담론 변화를 단순한 의제 이동이 아니라 의제 간 재결합 과정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주제어: 공직사회 담론, 빅카인즈, 텍스트마이닝, 토픽모델링, 공출현 네트워크】

* 본 논문은 2026년 2월 서울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원고를 수정·발전시킨 것입니다. 논문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유익한 의견을 주신 익명의 심사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 제1저자, 경찰대 치안대학원 박사과정(soongin95@naver.com)

*** 교신저자, 경찰대 행정학과, 치안대학원 공공안전학과 부교수(jisu@police.ac.kr)

논문접수일(2026.4.1), 수정일(2026.5.19), 게재확정일(2026.6.7)

I. 서론

본 연구는 2013년부터 2022년까지 한국 언론에 재현된 공직사회 담론이 어떠한 의제, 프레임, 관계 구조 속에서 재구성되어 왔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시기별 담론의 변화 양상과 연속성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2013년부터 2022년까지의 시기를 중심으로 공직사회 관련 언론 담론의 의제 구성과 결합 구조가 어떠한 방식으로 재구성되어 왔는지를 분석한다. 본 연구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질문으로 시작하였다. 첫째, 2013년부터 2022년까지 한국 언론에서 공직사회와 관련하여 어떠한 핵심 의제가 부각되어 왔는가? 둘째, 공직사회 담론은 시기별로 어떠한 프레임과 의미 결합 양상을 보이는가? 셋째, 공직사회 담론을 구성하는 핵심 개념 간 관계는 시기별로 어떠한 재배치 양상을 보이며, 어떠한 관계 구조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가? 본 연구는 이를 통해 공직사회 관련 언론 담론이 기존 의제와 새로운 정책·사회적 의제가 상호작용하는 과정 속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재구성되는지를 검토한다.

한국 언론에서 재현된 공직사회 관련 언론 담론은 지난 10여 년간 행정개혁, 디지털 전환, 조직문화 변화 등 다양한 의제와 함께 재현되어 왔다. 특히 2013년부터 2017년까지는 신공공관리론(NPM)에 기반한 행정개혁 담론이 두드러진 시기로 평가된다. 이 시기 공직사회 논의는 공무원연금 개혁, 성과관리 강화, 조직 효율성 제고와 같은 제도적 개혁 의제를 중심으로 전개되었으며(Lane, 2002: 14-16; Indahsari & Raharja, 2020: 73-74; 박지홍, 2012: 1-2), 박근혜 정부 역시 구조개혁과 성과관리 강화를 주요 정책 기조로 제시하였다(임주영·박형준, 2015: 149). 이러한 정책 흐름과 동시기에 공직사회 관련 언론 담론에서도 제도개혁 및 행정 효율성 관련 의제가 상대적으로 빈번하게 재현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언론은 특정 이슈를 선택하고 강조함으로써 공중이 사회 현실을 인식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매체로 간주된다(McCombs & Shaw, 1972: 176-177; Entman, 1993: 52-53). 의제설정 이론과 프레임 이론에 따르면 언론은 특정 문제를 공적 의제로 부각시키고 해석의 틀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현실을 구성하는 역할을 수행한다(Scheufele, 1999: 105-106). 이러한 관점에서 언론 텍스트는 공직사회를 둘러싼 가치체계와 인식 구조를 분석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기능한다(Berger & Luckmann, 1966: 33-36; Foster, 2016: 378-380).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2017년 이후 공직사회를 둘러싼 언론 담론에서는 기존 제도개혁 의제와 함께 보다 다양한 사회적·조직적 이슈가 함께 재현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해당 시기 언론 담론에서는 사람 중심 행정, 사회적 가치, 유연근무, 워라벨, 공정성과 관련된 의제가

정책 담론과 언론 보도에서 빈번하게 등장하였으며(Joo et al., 2020: 5-7; Lee & Kim, 2023: 106-108; 김지성, 2019: 152-153, 155; 정희정, 2019: 49-50), 동시에 코로나19 대응과 디지털 행정 전환과 같은 새로운 정책 의제도 부상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공직사회 관련 언론 담론에서 정부 정책 환경 변화뿐 아니라 팬데믹, 디지털 전환, 세대 변화 등 다양한 사회적·제도적 요제가 함께 반영되는 경향이 나타났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 제도개혁 의제가 새로운 정책·사회적 의제와 어떠한 관계 속에서 결합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주요 선행 연구들은 설문조사와 사례 연구를 통해 세대 차이, 조직문화 갈등, 직무만족, 이직의도 등을 설명해 왔다(Parker & Bradley, 2000: 125-127; Wright & Davis, 2003: 72-74; Jurkiewicz & Brown, 1998: 20-22, 30-31). 구자균·이정옥(2024)은 X세대와 MZ세대 공무원의 이직의도를 비교하여 세대 간 워라밸 선호 차이를 제시하였고, 서진우·강종수(2022)는 MZ세대 공무원의 이직 사유로 조직문화 부적합 문제를 분석하였다. 또한 김진영 외(2024)와 황성호(2023)는 공정성 담론과 조직몰입 변화 등을 분석하며 공직사회 담론의 의제 구성, 관계 구조, 재배치 양상을 분석한다. 그러나 기존 연구는 개인 수준의 분석에 주로 초점을 두고 있어, 언론 담론이 시기별로 형성하는 의제, 프레임, 구조를 장기 시계열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한국언론진흥재단 빅카인즈 데이터를 활용하여(2013~2022) 공직사회 담론의 관계 양상과 변화 경향을 분석한다. 키워드 분석, 토픽모델링, 공출현 네트워크 분석을 결합하여 110만 건 이상의 뉴스 데이터를 다층적으로 분석하고, 기존 의제가 새로운 정책·사회적 맥락과 어떠한 관계 속에서 결합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2013~2022년이라는 과거 시기를 분석 대상으로 하지만, 이 시기의 담론 구조를 추적하는 것은 현재적 함의를 갖는다. 첫째, 공직사회 담론의 장기 추세와 구조적 패턴을 확인함으로써 2023년 이후 윤석열 정부 시기 담론 변화를 해석하는 기준선(baseline)을 제공한다. 특히 본 연구가 확인하는 성과주의 담론의 점진적 약화, 공정성 담론의 상대적 증가 및 디지털 전환 담론의 단계적 강화, 조직문화 담론의 구조적 지속성이라는 세 가지 패턴은, 현재 공직사회 관련 언론 담론에서 재부상하는 성과관리, 공정성, 조직문화 관련 의제가 어떠한 방식으로 결합되는지를 비교적으로 해석하는 기준선으로 활용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가 탐색하는 ‘누적적 재구성’ 패턴(기존 의제가 소멸하지 않고 새로운 의제와 결합되는 방식)은 다양한 정책 환경 변화 속에서 공직사회 담론의 재배치 양상을 해석하기 위한 분석적 관점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분석 대상 시기는 완료된 과거가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공직사회 담론을 이해하기 위한 구조적 기반으로 기능한다.

본 연구의 기여는 박근혜·문재인 정부 시기의 정책 기조 차이를 확인하는 것 자체에 있지

않다. 핵심 기여는 다음 세 가지다. 첫째, 110만 건 규모의 실제 언론 텍스트를 통해 정부 정책 환경 변화와 외생적 사회 변화가 언론 담론 공간에서 어떠한 의제 재배치 양상으로 나타나는지를 실증적으로 시사한다. 이는 정책 담론과 언론 담론 간 구성 방식의 차이를 실증적으로 시사한다. 둘째, 기존 공직사회 연구가 개인 수준 설문에 의존해 온 데 반해, 본 연구는 사회적 의제 형성 수준에서의 담론 구조를 텍스트마이닝으로 측정하는 방법론적 대안을 제시한다. 셋째, ‘누적적 재구성(cumulative reconfiguration)’ 개념을 통해 담론 변화를 단순 대체가 아닌 의제 재결합 과정으로 해석함으로써, 행정학 분야 담론 연구에서 관계 중심 텍스트 분석 접근의 활용 가능성을 제시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신공공관리론, 공직개혁 프레임, 세대담론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 NPM)은 신제도주의 경제학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공공조직의 비효율 문제를 제도 설계와 성과관리의 관점에서 설명한다(Williamson, 1985: 17-19; Jensen & Meckling, 1976: 308-310). 이러한 이론적 관점은 공공조직을 효율성과 성과 중심으로 운영·평가할 대상으로 이해하게 하였으며, 이후 행정개혁 담론의 주요 이론적 기반으로 활용되었다. 한국 공공부문에서도 외환위기 이후 효율성과 성과 중심의 행정개혁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으며(Kim & Han, 2015: 695), 이러한 흐름은 박근혜 정부 시기에 공무원연금 개혁, 성과연봉제 확대, 공공기관 정상화 정책 등을 통해 제도 중심 개혁 의제로 상대적으로 빈번하게 재현되었다(노광표, 2015: 21-22; 배정숙, 2017: 2).

신공공관리론은 예산 절감과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였으나, 공공성 약화, 단기 성과주의 등의 문제점도 함께 제기되어 왔다(Byrkjeflot, 2016: 150-152). 본 연구는 이 이론을 박근혜 정부 시기 ‘연금’, ‘성과’, ‘개혁’ 중심 담론 구조를 설명하는 이론적 틀로 활용한다. NPM의 시장주의적 편향에 대한 비판으로 공공거버넌스(NPG) 패러다임이 부상하였으며(Osborne, 2006; Christensen, 2012), 공공조직이 가치 제안과 공공가치 창출을 강조해야 한다는 관점으로 발전하였다(Moore, 1997; Torfing et al., 2019).

이와 같은 공공거버넌스적 관점은 2017년 이후 한국 행정 담론에서도 보다 뚜렷하게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는 사람 중심 행정, 사회적 가치, 포용, 삶의 질과 같은 정책 방향을 강조하였으며(조영철, 2018: 134-135; 남궁근, 2019: 35-36), 관련 연구들 역시 이러한 변화와

동시기에 공공조직 관련 언론 담론에서 가치지향적 의제가 상대적으로 빈번하게 재현되는 경향이 함께 나타났음을 논의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공직사회 관련 언론 담론에서 조직문화·공정성 관련 의제가 상대적으로 부각되는 담론 환경과 일정 부분 관련될 가능성을 시사한다(Yoon & Lee, 2020: 7-9). 이 시기 정부혁신 담론은 단순한 제도 구조 개편을 넘어 공공조직 내부의 조직문화, 신뢰, 구성원 동기와 관련된 의제가 언론 및 정책 담론에서 함께 강조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Lee et al., 2020: 291-292).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기존의 성과·개혁 중심 담론을 완전히 대체한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가치·조직문화 관련 의제와 함께 재구성된 것인지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한국 공직사회의 세대 관련 담론은 조직문화와 직무 인식 변화 가능성을 설명하는 보조적 맥락 요인으로 활용될 수 있다. Strauss와 Howe(1991)의 세대 이론 및 Inglehart(1977)의 가치 변화 이론은 세대 간 가치 차이가 조직문화·공정성 관련 의제로 재현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선행연구들 역시 MZ세대 공무원의 위라벨 선호, 공정성 민감성, 이직의도 등을 보고하였다(박순형, 2022: 2-4; 구자균·이정옥, 2024: 244-245; 황성호, 2023: 218-220). 다만 본 연구는 세대 이론을 독립적 원인 변수가 아닌 보조적 맥락 틀로 활용한다.

2. 언론의 프레임·의제설정 이론과 담론 결합 양상 변화

프레임 이론은 언론이 특정 이슈를 어떠한 관점에서 해석하고 강조하는지를 설명한다(Entman, 1993: 52-53). 의제설정 이론은 언론의 보도 방식이 대중의 중요도 인식을 형성하며(McCombs & Shaw, 1972: 177), 특히 2수준 의제설정 이론은 동일한 이슈라도 강조되는 속성에 따라 공중의 인식 구조가 달라질 수 있음을 제시한다(Scheufele, 1999). 이 관점에서 공직사회 담론은 한 시기에는 연금·성과·개혁과 같은 제도개혁 속성이, 다른 시기에는 조직문화·공정성과 같은 속성이 부각될 수 있다. 나아가 Guo et al.(2012)의 네트워크 의제설정 이론은 이슈와 속성들이 어떠한 관계 양상 속에서 함께 제시되는지를 분석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공출현 네트워크 분석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며, 어떤 의제가 부각되는가뿐 아니라 그 의제가 어떠한 속성과 결합되어 의미화되는지를 파악할 수 있게 한다. 본 연구는 이를 바탕으로 의제·프레임·구조 수준의 차이를 각각 검토한다. 구체적으로 H1은 특정 의제의 상대적 현저성(issue salience) 차이에, H2는 의제들이 어떠한 의미 묶음으로 구성되는지(attribute bundling)에, H3은 의제 간 결합 구조의 변화(co-occurrence configuration)에 각각 대응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Guo et al.(2012)의 네트워크 의제설정 관점을 의제·프레임·구조 수준에서 다층적으로 적용한다.

본 연구의 이론적 틀은 공직사회 담론을 언론 텍스트 기반으로 분석한 선행연구들과 방법론적으로 차별화된다. 이태준 외(2017)는 토픽모델링으로 원자력 관련 언론 담론의 시계열 변화를 분석하였으나, 이슈 간 관계 구조보다 의제 비중의 시기별 변화에 초점을 두어 의제들이 어떤 속성과 결합되어 의미화되는지의 구조적 차원은 포착하지 못하였다. 이영미(2014)는 언어 네트워크 분석으로 박근혜 정부 초기 국정 의제를 분석하였으나 단일 시점 분석에 머물러 담론 구조의 시기별 변화를 비교할 수 없었다. 본 연구는 이들과 달리 Guo et al.(2012)의 네트워크 의제설정 이론을 기반으로 (1) 어떤 키워드가 상대적으로 부각되는가(TF-IDF·log-odds), (2) 의제들이 어떤 의미 묶음으로 공존하는가(LDA), (3) 의제들이 어떤 결합 구조 양상으로 나타나는가(PMI 기반 공출현 네트워크)를 10년 장기 시계열로 통합 분석한다. 이는 단일 코퍼스에서 동일 이론의 세 층위를 다층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선행연구들이 개별적으로만 다루어 온 이슈-속성 간 결합 구조의 시기별 변화를 통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분석적 의의를 가진다.

3. 분석 대상 시기에 관한 관점과 선행연구

본 연구의 분석 대상 시기(2013~2017년, 2017~2022년)는 단순한 시간적 구획이라기보다 한국 공직사회를 둘러싼 정책 환경과 행정 담론의 구성 방식에 상대적으로 다른 특징이 나타난 시기로 이해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시기 구분은 행정 패러다임의 단선적 전환을 전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제도개혁과 성과관리 중심 의제와 조직문화·가치·구성원 경험 중심 의제가 시기별로 어떠한 방식으로 다뤄졌는지를 비교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분석적 구분이다. 또한 정부 정책 기조의 변화와 함께 팬데믹, 디지털 전환, 세대 구성 변화와 같은 환경적 요인 역시 시기별 담론 양상과 함께 나타난 주요 맥락 변수로 고려한다.

박근혜 정부는 공무원연금 개혁, 성과연봉제 확대, 공공기관 정상화 등 NPM 기반 제도 중심 개혁을 추진하였으며(이영미, 2014: 1-3; Nam, 2016: 2-4), 이 시기 공직사회 관련 언론 담론에서는 ‘연금’, ‘성과’, ‘효율’ 중심 의제가 상대적으로 더 빈번하게 재현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반면 문재인 정부는 사람 중심 행정, 사회적 가치, 포용 등 공공거버넌스 기조를 강조하였으며(조영철, 2018: 134-135; 이인원·이영미, 2019:643-645), 동시에 코로나19 팬데믹, 디지털 전환, MZ세대 유입 확대 등 외생적 환경 변화 역시 공직사회 관련 언론 담론과 함께 나타난 주요 맥락 요인으로 고려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 두 시기의 담론 차이를 텍스트마이닝으로 실증적으로 확인한다.

이에 따라 언론 보도에서도 MZ세대 공무원 관련 의제와 함께 자율성, 공정성, 일과 삶의 균형, 조직문화 개선과 관련된 키워드가 공직사회 담론에서 보다 빈번하게 재현되는 경향

이 나타났다(황성호, 2023: 218-220; 김진영 외, 2024: 148, 153). 그러나 이러한 변화를 공직사회 담론이 사람 중심 또는 가치 중심으로 단선적인 담론 전환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제도 개혁과 성과관리 의제, 조직문화와 공정성 의제, 그리고 위기 대응과 디지털 전환 의제가 어떠한 방식으로 병존하며 재구성되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존 연구들이 개인 수준의 태도·인식 분석에 집중해 온 반면, 언론 담론이 시기별로 형성하는 의제·프레임·구조를 장기 시계열로 통합 분석한 연구는 제한적이다. 이에 본 연구는 공직사회 관련 언론 담론의 의제·프레임·구조를 장기 시계열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4. 분석틀의 이론적 통합: 누적적 재구성 개념

공직사회 관련 언론 담론의 재구성 양상을 해석하기 위한 분석적 관점으로 ‘누적적 재구성(cumulative reconfiguration)’ 개념을 활용한다. 이는 기존 제도개혁 담론이 완전히 대체되거나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새로운 정책·사회적 의제와 결합하며 재배치되는 과정을 의미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성과주의·연금·개혁 관련 의제가 완전히 소멸하지 않은 채, 공정성·디지털 전환·위기대응 관련 의제와 서로 다른 속도로 결합 구조가 재배치되는 양상이 나타날 가능성에 주목한다.

이 개념은 Mahoney & Thelen(2010)의 layering 논의와 구분된다. layering은 기존 제도 위에 새로운 제도 층위가 점진적으로 추가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반면, 본 연구의 누적적 재구성은 담론 층위에서 기존 의제가 새로운 사회적 의제와 상호 결합하며 의미 연결망의 관계 구조가 재배치되는 과정을 분석적으로 해석한다는 점에서 분석 대상과 적용 명확히 구분된다. 첫째, layering은 공식 제도를 분석 대상으로 하며, 새로운 제도 층위가 기존 제도 위에 추가되는 방식으로 변화가 이루어진다. 반면 본 연구의 ‘누적적 재구성’은 언론 담론을 분석 대상으로 하며, 기존 의제가 소멸하지 않은 채 새로운 의제와 재결합하면서 의미 연결망의 관계 구조 자체가 재배치된다는 점에서 구분된다. 둘째, 기존 담론동학 연구는 주로 특정 담론 연합(discourse coalition)의 헤게모니 교체 혹은 규범적 틀의 전환에 초점을 두는 반면(Hajer, 1993: 43-45; Schmidt, 2008: 303-305), 본 연구의 누적적 재구성 개념은 의제 간 공출현 네트워크 구조의 점진적 재배치를 정량적으로 포착한다는 점에서 방법론적 차별성을 가진다. 이는 담론 변화를 단절적 전환이 아닌 구조의 점진적 재편 과정으로 이해하게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특징들이 함께 나타나는 경향이 존재하는지에 주목한다. 첫째, 담론 의제의 지속성으로, 기존 핵심 의제는 소멸하지 않고 담론 공간에 지속적으로 존재한다. 둘째, 핵심 개념군 빈도의 상대적 안정성으로, 개별 개념군의 전체 빈도 수준은 상대적으로 급격한 변동 없이 유지되는 경향을 보인다. 셋째, 공출현 관계의 변

화로, 기존 의제가 어떤 의제와 결합되는가, 즉 공출현 관계 양상이 시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조건들이 함께 관찰될 경우 담론 변화가 단순 대체보다 재결합 양상으로 해석될 가능성에 주목한다. 다만 본 연구는 누적적 재구성을 독립적인 제도변화 이론으로 제시하기보다, 언론 담론 공간에서 기존 의제가 새로운 정책·사회적 의제와 어떠한 관계 구조 속에서 재배치되는지를 설명하기 위한 해석적·분석적 개념으로 제한적으로 활용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공직사회 담론의 변화를 단순한 대체보다 기존 의제와 새로운 의제가 결합되는 재결합의 관점에서 해석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성과·연금·개혁 중심 의제는 일정 수준 유지되면서, 공정·디지털·위기대응 관련 의제와의 결합 양상이 상대적으로 강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이후 분석에서 검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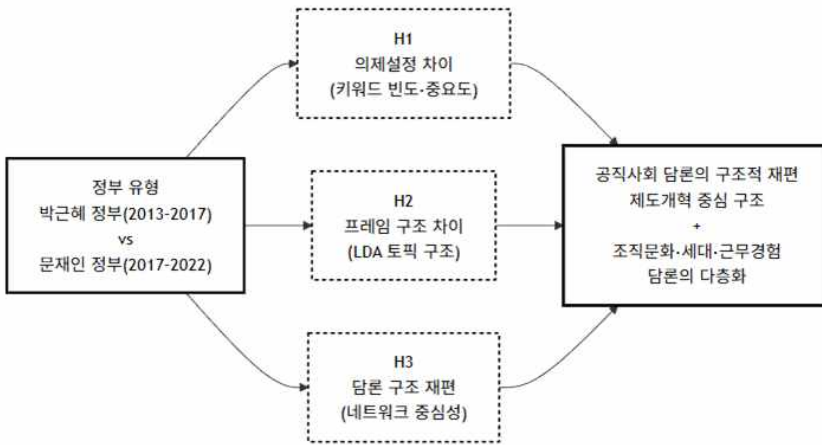
Ⅲ. 연구 설계

1.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

본 연구는 박근혜 정부(2013-2017년)와 문재인 정부(2017-2022년)를 비교 시점으로 설정하여, 한국 언론에 나타난 공직사회 담론의 시기별 담론 재구성 양상을 탐색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두 시기는 공직사회를 둘러싼 정책 기조와 행정환경, 그리고 사회적 쟁점과 담론 구성 방식에서 상대적으로 다른 특징이 나타난 시기로 이해될 수 있다. 다만 본 연구는 이러한 시기 구분을 행정 패러다임의 단선적 전환으로 전제하지 않으며, 제도개혁·성과관리 의제와 조직문화·공정성 관련 의제, 그리고 위기대응·디지털 전환 관련 의제가 시기별로 어떠한 상대적 현저성과 결합 구조 양상을 보이는지를 비교적으로 검토한다.

담론 분석의 차원은 의제설정이론과 프레임이론에 근거하여 의제 수준, 프레임 수준, 구조 수준으로 구분하였다. 의제 수준은 공직사회 관련 기사에서 어떠한 주제 묶음과 의미 결합 양상 속에서 구성되는지를, 프레임 수준은 공직사회가 어떠한 주제 묶음과 의미 결합 양상 속에서 구성되는지를, 구조 수준은 핵심 개념 간 결합 관계와 공출현 구조의 변화를 탐색적으로 검토한다. 여기서 구조 수준은 단어 간 공출현 관계망을 의미하며, 이는 개별 토픽의 비중 변화뿐 아니라 의제 간 관계 구조가 어떠한 방식으로 재배치되는지를 함께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그림 1〉 연구모형



박근혜 정부 시기는 공무원연금 개혁·성과연봉제 등 제도개혁과 성과관리 중심 정책이 강조된 시기로, 이 시기 언론 담론에서는 연금·성과·개혁 중심 의제가 상대적으로 빈번하게 재현되는 경향이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문재인 정부 시기에는 조직문화·공정성·디지털 전환·위기대응 관련 의제가 상대적으로 더 빈번하게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공직사회 담론의 시기별 차이가 의제, 프레임, 구조 수준에서 각각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보고, 다음과 같은 연구 가설을 설정하였다.

H1(의제 수준): 문재인 정부 시기 공직사회 담론에서는 조직문화·공정성 관련 의제뿐 아니라 디지털 전환·위기대응 관련 의제가 박근혜 정부 시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은 비중으로 재현될 것이다.

H2(프레임 수준): 문재인 정부 시기 공직사회 담론에서는 기존 제도개혁 중심 토픽 외에 조직문화·공정성 및 디지털 전환·위기대응 관련 의제가 복수의 의미 묶음으로 병존하는 경향이 박근혜 정부 시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빈번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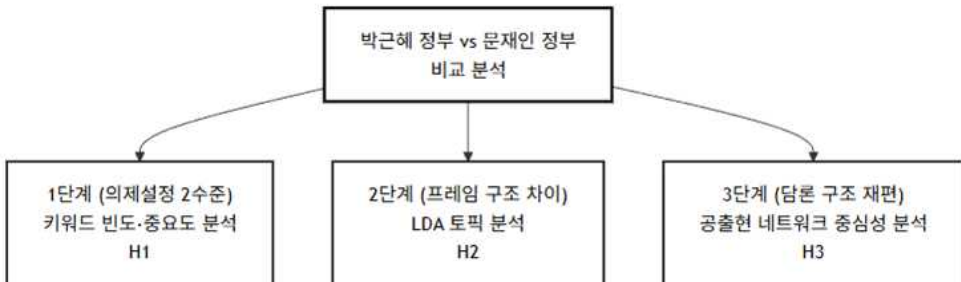
H3(구조 수준): 문재인 정부 시기 공직사회 담론에서는 공정성·디지털 전환·위기대응 관련 키워드가 기존 제도개혁 중심 키워드와 함께 재현되는 결합 관계가 상대적으로 빈번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나타날 것이다.

본 연구는 공직사회 관련 언론 담론의 시기별 차이를 단일 지표로 환원하지 않고, 각 분석 수준이 서로 다른 분석 질문에 대응하도록 설계하였다. 의제 수준에서는 어떤 키워드가 상대적으로 높은 현저성을 보이는지를 검토하고, 프레임 수준에서는 이러한 의제들이 어떠한 의미 묶음 속에서 함께 구성되는지를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구조 수준에서는 개별 의제의

등장 여부를 넘어, 핵심 의제 간 결합 관계를 검토한다.

이를 통해 기존 의제와 새로운 의제 간 결합 양상이 어떠한 방식으로 나타나는지를 추가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첫째, 코로나19 관련 어휘를 제거한 후 동일한 분석을 재수행하여 결과가 단순한 어휘 충격에 의한 것인지를 점검한다. 둘째, 문재인 정부를 코로나19 이전(2017-2019)과 이후(2020-2022)로 분할하는 3시기 비교를 통해 정부교체와 코로나19 외 생충격이 담론 형성 양상에 미친 상대적 영향을 시간적으로 비교한다. 또한 개별 키워드 수준을 넘어 ‘공정성’, ‘디지털 전환’, ‘성과주의’, ‘방역/위기대응’, ‘조직문화’ 5개 개념군 단위에서 나타나는 담론 재배치 양상을 추가적으로 검토한다.

〈그림 2〉 연구 설계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한국언론진흥재단 빅카인즈(BigKinds) 플랫폼에서 수집한 공직사회 관련 뉴스 기사(2013.02.25.-2022.05.09., 총 1,105,749건)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특정 언론 성향 편중 가능성을 완화하고자 보수 성향 언론(중앙일보·조선일보·동아일보), 진보 성향 언론(경향신문·한겨레·프레스인), 공영방송(KBS·MBC·SBS·YTN) 등 10개 언론사를 균형 있게 포함하였다. 또한 보수·진보·공영 매체를 균형적으로 포함함으로써 특정 언론 성향에 따른 담론 편향 가능성을 완화하고자 하였다. 다만 동일 시기 내에서도 언론사별 기사량과 보도 프레임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조치가 매체 편향을 완전히 배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빅카인즈 검색 키워드는 제도개혁(NPM) 담론과 조직문화·세대 담론의 대비를 반영하여 공직사회, 공무원, 공직개혁, 행정개혁, 조직, 혁신, 제도, 성과, 평가, 조직문화, 근무환경, 세대, 청년, 공정성의 14개 핵심어를 OR 연산자로 결합하여 구성하였다. 이들 키워드는 ‘공직사회’라는 포괄적 주제를 다양한 측면에서 포착하기 위해 구성된 것이나, ‘조직’, ‘혁신’,

‘제도’, ‘평가’와 같은 일반적인 행정 용어가 포함되어 있어 공직사회와 직접적 관련성이 낮은 기사까지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포괄적 검색이 공직사회 관련 언론 담론과 주변 정책 담론을 함께 포착하기 위한 목적에서 설계된 것임을 밝힌다.

이러한 포괄적 검색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검토 및 정제절차를 적용하였다. 첫째, LDA 토픽 분석 결과에서 공직사회와 관련성이 낮은 토픽의 대표 기사를 KWIC 분석으로 확인하여 해석 과정에서 제한적으로 반영하였다. 둘째, TF-IDF 상위 키워드 중 ‘플랫폼’, ‘인공지능’, ‘산업’ 등 기술·산업 일반어에 대해 KWIC 분석을 통해 공직사회 맥락에서 사용되는 의미 관계를 별도로 검토하였다. 셋째, 코드 단위에서 ‘공무원’ 또는 ‘공직’ 어휘를 함께 포함하는 기사를 AND 조건으로 추출하여 소규모 보조 분석을 실시하고, 핵심 결과 방향의 일관성을 추가적으로 확인하였다. 이러한 절차에도 불구하고 공직사회 관련 어휘를 포함하지만 직접적 관련성이 낮은 일부 공공·행정 담론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은 본 연구의 한계로 남는다. 자료 전처리 결과, 박근혜 정부 시기 416,527건, 문재인 정부 시기 689,222건의 기사가 최종 분석에 활용되었다.

〈표 1〉 데이터 수집 및 전처리 현황

항목	내용
분석 기간	2013.02-2022.05
원본 기사	1,180,880건
중복 제거 후	1,123,786건(삭제된 기사 수: 57,094건)
날짜 변환 실패 제거 후	1,123,786건(변환 실패 기사 수: 0건)
텍스트 전처리 후	1,105,749건(재임 기간 전/후 기사 수: 18,037건)
최종 분석용 데이터	1,105,749건
박근혜 정부	416,527건
문재인 정부	689,222건
분석 단위	기사 텍스트

3. 분석방법

본 연구는 다층적 담론 구조를 분석하기 위해 TF-IDF, LDA 토픽모델링, PMI 기반 공출현 네트워크 분석을 결합한 텍스트마이닝 접근을 적용하였다. 기존 담론 분석에서 주로 활용되어 온 전통적 내용분석(content analysis)은 코딩 범주를 사전에 설정해야 하므로 연구자가 예상하지 못한 의제나 의미 결합 양상을 귀납적으로 탐색하기 어렵고, 110만 건 이상의 대규모 코퍼스를 수작업으로 분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한 한계가 존재한다. 이에 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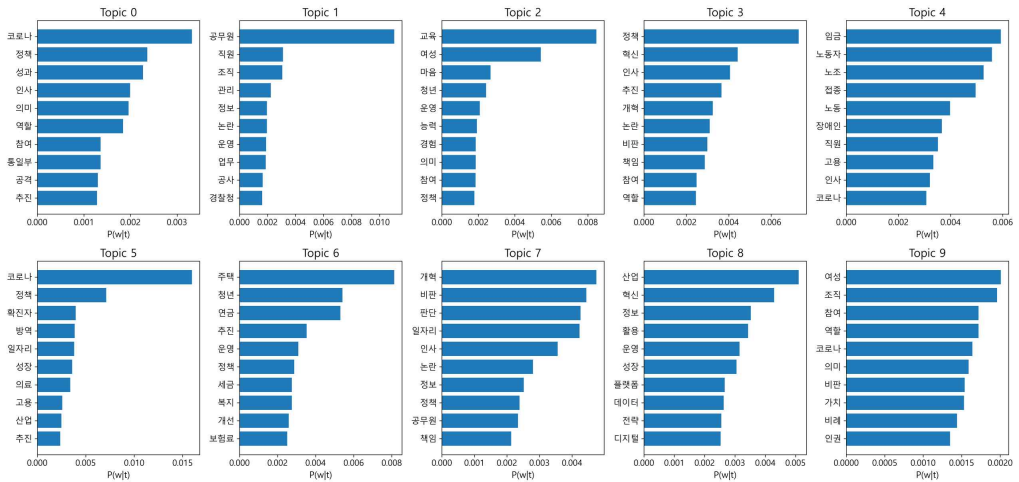
해 LDA 토픽모델링은 사전 범주 없이 데이터로부터 잠재적 주제 구조를 데이터 기반으로 탐색하고, 대규모 코퍼스를 자동 처리하며, 단어들이 어떤 의미 묶음 속에서 함께 등장하는지를 확률적으로 포착하여 의미 관계 및 주제 결합 양상을 비교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PMI 기반 공출현 네트워크 분석은 단순 빈도 비교를 넘어 의제 간 관계 결합 양상의 시기별 차이를 정량화하여 ‘어떤 의제가 어떤 맥락과 결합되는가’라는 구조적 관계 양상을 탐색적으로 검토할 수 있게 한다. 다만 텍스트마이닝은 문맥적 의미와 담론의 방향성(긍정/부정)을 완전히 포착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지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KWIC 분석을 통한 질적 교차검증을 병행하였다.

본 연구는 수집된 1,105,749건의 뉴스 기사에 대해 정규표현식 기반 전처리와 형태소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후 KoNLPy의 Okt 형태소분석기를 적용하여 명사를 추출하였다(Park & Cho, 2014: 134-135). 기본 불용어에는 조사·접속사·기능어와 함께 특정 인물·정당·기관명 및 일반 사회어를 포함하였다. 또한 ‘정책’, ‘평가’, ‘운영’ 등 공통 행정어는 조건부 불용어로 분류하여 TF-IDF와 log-odds 분석에서만 제외하였다. 한 글자 명사와 숫자·외국어 토큰은 제거하였으며, 최종 분석 대상은 두 글자 이상의 한글 명사로 한정하였다.

의제 수준 분석에서는 TF-IDF와 log-odds 분석을 병행하였다. TF-IDF 분석은 시기별 문서 공간에서 상대적으로 특징적인 키워드를 탐색하기 위해 수행하였으며, log-odds 분석은 Monroe et al.(2008)의 informative Dirichlet prior 기법을 적용하여 통계적 차별성을 검토하였다. 또한 TF-IDF와 log-odds 결과 간 일관성을 비교 검토하고, 주요 차별 키워드에 대해서는 KWIC(Key Word In Context) 분석을 통해 실제 기사 문맥에서의 사용 양상을 확인하였다(Fischer, 1966: 57-58; Sedano, 1964: 20-22; Matthews & Shillingford, 1973: 140-142).

코로나19 관련 외생적 환경 변화와 담론 재구성 간 관계를 추가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코로나 관련 어휘 제거 분석과 3시기 비교 분석을 수행하였다. 문재인 정부 시기를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여 TF-IDF 및 log-odds 비교를 수행하였다. 또한 공정성·디지털 전환·조직문화 관련 의제가 코로나19 이전부터 나타났는지를 추가적으로 검토하였다. 프레임 수준 분석을 위해서는 LDA 토픽 모델링을 수행하였다. LDA는 문서 집합에서 잠재 주제를 확률적으로 추론하는 기법으로(Blei et al., 2003), 각 시기 담론의 의미 결합 양상을 비교하는 데 활용하였다. 토픽 수는 coherence 지표와 해석 가능성을 고려하여 결정하였다.

〈그림 3〉 통합 LDA 토픽 구조 (k=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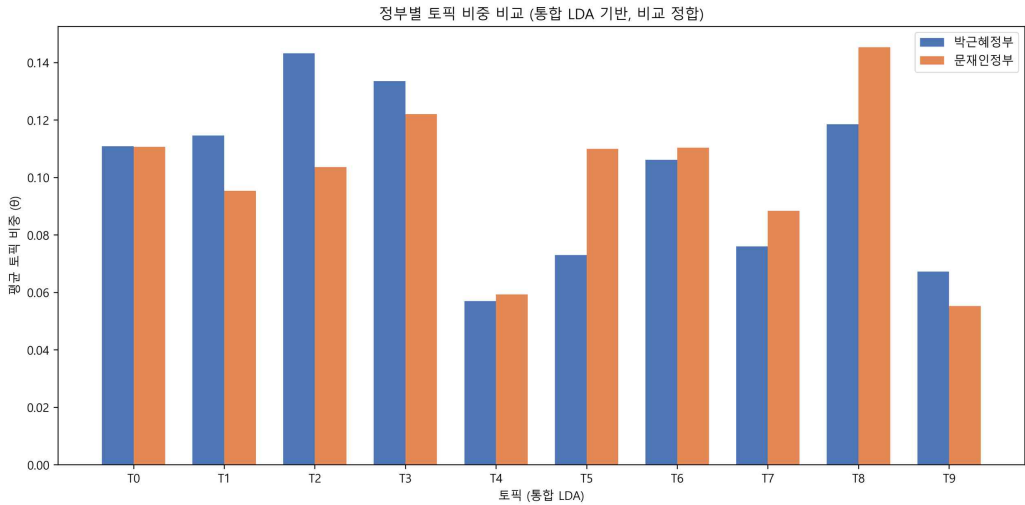
정부별 직접 비교를 위해 통합 LDA 방식을 적용하였으며, 독립 LDA 결과를 보조적으로 검토하였다. 구체적으로, 박근혜 정부 기사(416,527건)와 동일 규모로 문재인 정부 기사를 무작위 다운샘플링(random seed=42)하여 균형 표본(각 416,527건)으로 통합 LDA를 재추정한 결과, 10개 토픽의 상위 키워드 구성과 정부별 비중 차이의 방향성이 원분석과 일치하였다(토픽별 비중 차이 평균 변화 0.002 미만, 최대 변화 0.010 미만). 통합 LDA와 정부별 독립 LDA 간 방향성 일치는 각 정부의 독립 LDA 상위 키워드와 통합 LDA 동일 토픽 상위 키워드의 중첩률로 확인하였다(상위 10개 키워드 기준 평균 중첩률 70% 이상). 이러한 결과는 표본 불균형이 토픽 공간 구성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임을 구체적으로 시사한다.

〈표 2〉 정부별 평균 토픽 비중

토픽	상위 키워드	박근혜정부 (θ)	문재인정부 (θ)
0	코로나, 정책, 성과, 인사, 의미	0.110	0.110
1	공무원, 조직, 직원, 관리, 논란	0.115	0.096
2	교육, 여성, 마음, 청년, 운영	0.144	0.104
3	정책, 혁신, 인사, 추진, 개혁	0.133	0.122
4	임금, 노동자, 노조, 접종, 노동	0.057	0.059
5	코로나, 정책, 확진자, 방역, 일자리	0.074	0.111
6	주택, 연금, 청년, 추진, 복지	0.107	0.112
7	개혁, 일자리, 비판, 판단, 인사	0.075	0.088
8	산업, 혁신, 정보, 활용, 데이터	0.118	0.144
9	여성, 조직, 역할, 참여, 가치	0.067	0.055

주: 〈표 2〉의 토픽 번호는 통합 LDA 기준이며, 이후 제시되는 정부별 독립 LDA 토픽 번호와 직접 대응되지 않는다.

〈그림 4〉 정부별 토픽 비중 비교



이후 도출된 토픽은 상위 키워드 구성과 문맥 검토를 바탕으로 해석적으로 비교하였다. 토픽 해석은 상위 출현 단어와 대표 기사 문맥(KWIC)을 기준으로 하되, 연구자 주관 개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별도의 요약 명칭을 부여하지 않았다(Chang et al., 2009).

구조 수준 분석에서는 PMI 기반 공출현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였다. 정부별 PMI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Delta PMI (= PMI_{\text{문재인}} - PMI_{\text{박근혜}})$ 를 산출하였다. ΔPMI 가 양수이면 해당 어휘 쌍이 문재인 정부 시기에 더 강하게 결합된 관계임을, 음수이면 박근혜 정부 시기에 더 강하게 결합된 관계임을 의미한다. 추가적으로 주요 키워드의 중심성 분석과 Mann-Whitney U 검정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단위는 언론 기사에 나타난 공직사회 관련 담론이며, 실제 공무원의 인식, 태도, 조직문화 상태를 직접 측정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공직사회 내부 현실 자체라기보다, 언론이 공직사회 관련 문제를 어떠한 의제와 프레임을 통해 재현하였는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IV. 분석결과

1. 의제 수준 분석: 키워드 중요도 변화(H1 검증)

1) 워드 클라우드 탐색적 분석

〈그림 5〉 정부 시기별 공직사회 담론의 주요 어휘 분포



공직사회 담론의 전반적 어휘 분포를 파악하기 위한 워드클라우드 분석 결과, 두 정부 시기 모두에서 ‘평가’, ‘공무원’, ‘정책’, ‘운영’, ‘인사’ 등 공통 행정어가 상위 빈출어로 일관되게 지속되었다. 이는 두 정부 시기 모두에서 행정 운영과 인사 관리 중심의 공통 담론 기반이 유지되었음을 시사한다. 다만 시기별로 상대적으로 두드러지는 어휘에는 차이가 나타났다. 박근혜 정부 시기에는 ‘조직’, ‘임금’ 등이, 문재인 정부 시기에는 ‘코로나’, ‘추진’, ‘산업’ 등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졌다. 이는 시기별로 강조되는 정책·사회적 의제에 차이가 존재함을 시사한다. 다만 디지털 전환 관련 의제의 상대적 강화 여부는 이후 TF-IDF 및 log-odds 분석을 통해 추가적으로 검토하였다.

〈표 3〉 정부별 워드클라우드 상위 10위 키워드

순서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1	평가	코로나
2	공무원	평가
3	정책	정책
4	교육	공무원

5	운영	추진
6	조직	운영
7	추진	교육
8	인사	여성
9	여성	인사
10	임금	산업

2) TF-IDF 중요도 변화 분석

단어 빈도 분석의 한계를 보완하고 각 키워드의 문서 집합 내 상대적 특이성을 측정하기 위해 TF-IDF 분석을 수행하였다(Sparck Jones, 1972: 11-13).

〈표 4〉 TF-IDF 중요도 변화 상위 키워드(조건부 불용어 적용)

순위	키워드	박근혜정부	문재인정부	중요도 합계	증감률(%)
1	플랫폼	0.0015029	0.0081276	0.0096305	440.77
2	인공지능	0.0013364	0.0053910	0.0067274	303.40
3	디지털	0.0024332	0.0073271	0.0097602	201.13
4	데이터	0.0020835	0.0054502	0.0075337	161.59
5	공정	0.0037503	0.0072262	0.0109765	92.68
6	주택	0.0058631	0.0112624	0.0171255	92.09
7	규제	0.0062151	0.0097572	0.0159724	56.99
8	산업	0.0086284	0.0128654	0.0214938	49.10
9	절차	0.0043070	0.0061156	0.0104226	41.99
10	판단	0.0067686	0.0093427	0.0161113	38.03

분석 결과, 문재인 정부 시기에는 ‘플랫폼’, ‘디지털’ 등 디지털 전환 및 기술혁신 관련 키워드의 상대적 중요도가 크게 증가하였다. ‘플랫폼’은 문재인 정부 시기 문서 공간에서 상대적으로 특징적인 키워드로 나타났다. 이는 탐색적 결과이며, 통계적 차별성은 이후 log-odds 분석을 통해 검토하였다. 반면, 박근혜 정부 시기와 관련성이 높았던 제도개혁 관련 키워드 가운데 일부는 문재인 정부 시기에 상대적 중요도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공직사회 담론에서 위기대응·디지털 전환·조직 내부 운영 관련 의제가 상대적으로 부각되는 경향이 나타났음을 시사한다. 다만 의제 간 결합 양상은 이후 공출현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추가적으로 검토하였다. 따라서 이후 log-odds 및 KWIC 분석과 결합하여 시기별 차이를 해석하였다.

결론적으로, TF-IDF 분석은 문재인 정부 시기 공직사회 담론에서 특정 정책·사회적 의제가 상대적으로 특징적으로 등장하였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경향은 이후 프레임 및 네트워크 분석에서도 부분적으로 확인된다.

3) log-odds 통계적 차별성 검증

TF-IDF 분석의 탐색적 결과를 통계적 유의성 관점에서 검토하기 위해 log-odds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 분석은 각 키워드가 특정 정부 시기에서 통계적으로 강화되었는지 여부를 z-score 기준으로 판별하였다(Monroe et al., 2008: 381-382).

〈표 5〉 log-odds 상위 강화 키워드(z-score 기준)

(a) 문재인 정부 강화

순위	키워드	z-score
1	코로나	+302.82
2	확진자	+126.93
3	방역	+115.57
4	접종	+113.08
5	플랫폼	+93.97

(b) 박근혜 정부 강화

순위	키워드	z-score
1	연금	-71.44
2	임금피크제	-58.01
3	공무원연금	-52.82
4	복지	-46.21
5	민영화	-44.37

분석 결과, 문재인 정부 시기에서 통계적으로 가장 강하게 나타난 키워드는 코로나19 관련 용어였다. 코로나19 대응 관련 키워드의 상대적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다. ‘플랫폼’, ‘디지털’ 등 디지털 전환 관련 키워드 역시 상대적으로 높은 z-score를 보였다. 반면 박근혜 정부 시기에서 통계적으로 강화된 키워드는 제도개혁 및 구조조정 관련 어휘로 나타났다. ‘연금’, ‘공무원연금’, ‘임금피크제’ 등은 당시 공직사회 담론이 공공부문 개혁과 재정 건전성 논의를 중심으로 전개되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시기별로 상대적으로 부각된 정책 의제와 핵심 키워드의 현저성(issue salience) 변화가 존재함을 시사한다. 다만 이러한 차이는

정부 기조의 변화만이 아니라, 팬데믹과 디지털 전환이라는 외생적 환경 변화가 함께 작용한 결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4) 교차검증 및 질적 맥락 분석

TF-IDF와 log-odds 결과의 교집합을 최종 차별 담론 키워드로 정의하였다. 한편 ‘혁신’, ‘관리’, ‘책임’과 같이 두 정부 시기 모두에서 등장하는 다의적 어휘의 경우, 동일한 키워드라도 시기별로 맥락과 의미가 다를 수 있다. KWIC 분석을 통해 이러한 맥락적 차이를 확인하였다.

〈표 6〉 최종 차별 담론 키워드 목록(TF-IDF x log-odds 교차 결과)

구분	차별 키워드
문재인정부	코로나, 방역, 접종, 플랫폼, 디지털, 뉴딜, 인공지능, 소상공인
박근혜정부	연금, 공무원연금, 성과연봉제, 구조조정, 민영화, 임금피크제

교차검증 결과, 문재인 정부 시기에는 위기대응 및 디지털 전환 관련 키워드가, 박근혜 정부 시기에는 제도개혁 관련 키워드가 상대적으로 특징적으로 나타났다. 정량적 분석의 타당성을 보완하기 위해 KWIC 분석을 추가로 수행하였다(Sedano, 1964: 20-22; Matthews & Shillingford, 1973: 140-142). 교차검증으로 도출된 차별 키워드를 기준으로 각 정부 시기 기사에서 문맥을 추출하여 사용 양상을 검토하였다.

〈표 7〉 최종 차별 담론 키워드 KWIC 예시 문장

정부 구분	키워드	문맥 내 사용 예시(KWIC)
문재인 정부	플랫폼	“ 플랫폼 기반의 비대면 행정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공공 부문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뉴딜	“한국판 뉴딜 정책은 디지털·그린 전환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박근혜 정부	연금	“공무원 연금 개편을 둘러싸고 여야 간 첨예한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공무원	“성과 중심 인사 제도 도입으로 공무원 사회 전반에 긴장감이 확산되고 있다.”

종합하면, 시기별로 강조되는 정책·사회적 의제에는 차이가 나타났다. 그러나 두 시기 모두에서 ‘공무원’, ‘운영’, ‘평가’, ‘인사’ 등 행정 운영 관련 핵심 어휘는 공통적으로 높은 중요도를 유지하였다. 이는 공직사회 관련 언론 담론이 특정 의제의 단순한 대체라기보다, 기존

의제가 유지되는 가운데 새로운 정책·사회적 의제와의 결합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따라서 H1과 관련된 일부 경향은 관찰되었다. 또한 코로나19 관련 어휘 제거 분석과 3시기 비교 결과는 본 연구의 주요 담론 차이가 단순한 코로나19 어휘 충격만으로 설명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특히 공정성 관련 의제는 코로나19 이전부터 이미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2. 프레임 수준 분석: LDA 토픽 모델링 결과(H2 검증)

의제 수준 분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통합 LDA 토픽 모델링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동일 기준에서 정부별 토픽 비중을 비교하기 위해 통합 LDA 방식을 적용하였다. 통합 LDA와 정부별 독립 LDA 결과를 비교할 때, 토픽 구성의 전반적인 방향성은 유사하게 나타났다. LDA 분석 결과, 박근혜 정부 시기에는 행정관리·효율화 관련 토픽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경향이 나타난 반면, 문재인 정부 시기에는 공직사회 내부 운영과 조직문화 관련 토픽, 코로나19 위기관리와 디지털 전환 관련 토픽이 병존하는 보다 복합적인 담론이 나타났다. 이는 시기별 담론 차이가 주제 결합 양상의 차이로 이어졌음을 시사한다.

1) 박근혜 정부 토픽 구조: 행정관리·효율화 중심 담론 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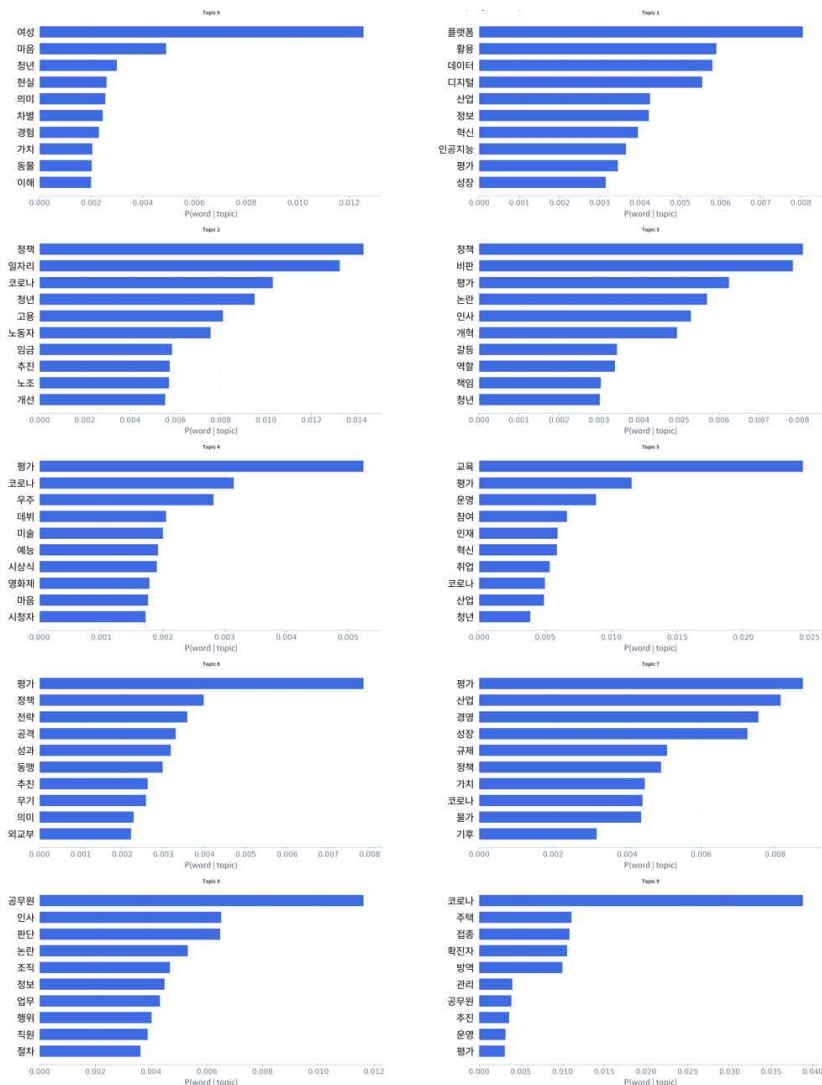
〈그림 7〉 박근혜 정부 시기 LDA 토픽(10개)



박근혜 정부 시기에는 교육·여성·청년 관련 토픽과 함께 제도개혁·인사·성과관리 관련 키워드를 포함한 토픽들도 함께 나타났다. 또한 토픽 8은 ‘경영’, ‘합병’, ‘계약’, ‘지분’, ‘매각’ 등으로 구성되어 공공기관 경영, 구조조정, 민영화 관련 논의와의 연관성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 시기의 담론 구조를 단일한 성과관리·구조조정 중심으로 단정하기보다는, 행정 관리 및 제도개혁 관련 의제가 상대적으로 포함된 담론 구조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

2) 문재인 정부 토픽 구조: 내부개선·외부위기관리 병존 구조

〈그림 8〉 문재인 정부 시기 LDA 토픽(10개)



문재인 정부 시기에는 조직문화·공정성 관련 의제가 코로나19 대응·디지털 전환 관련 의제와 함께 일부 의미 묶음 속에서 병존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한편, 토픽 9는 ‘코로나’, ‘접종’, ‘확진자’, ‘방역’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팬데믹 상황에서 언론 담론에서 공직사회가 위기대응 관련 맥락 속에서 빈번하게 등장하였음을 시사한다. 디지털 전환 관련 키워드가 다른 토픽과 결합하여 나타나는 점 역시, 문재인 정부 시기 공직사회 담론이 조직문화 논의에 그치지 않고 위기관리 및 기술혁신 관련 의제를 포함하는 경향을 시사한다.

3) 토픽 구조 비교와 해석

토픽 라벨링은 연구자의 선형적 해석이 개입될 수 있는 주관적 과정으로, 단일 연구자가 부여한 명칭이 토픽의 실제 의미 결합 양상을 왜곡하거나 과잉 해석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Chang et al., 2009: 3-4). 토픽 라벨링은 연구자의 해석 개입 가능성을 고려하여 최소화하였다.

두 시기의 토픽 구조를 비교하면, 박근혜 정부 시기에는 공직사회가 행정관리, 효율화, 구조조정과 같은 제도적 관리 대상의 맥락에서 비교적 일관되게 구성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는 앞서 이론적 논의에서 제시한 신공공관리론의 효율성 및 성과 중심 행정개혁 담론과 일정한 관련성을 갖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박근혜 정부 시기 담론은 제도개혁과 성과관리 중심으로 재현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반면 문재인 정부 시기의 토픽 구조에서는 조직문화, 근무환경, 공정성과 같은 조직 내부 경험 관련 의제가 코로나19 대응, 디지털 전환, 플랫폼 행정 등 위기 대응 및 행정환경 변화 관련 의제와 함께 병존하는 보다 복합적인 담론 양상이 관찰되었다. 이는 조직 내부 운영 관련 의제가 독립적으로 확대되기보다, 외부 환경 변화 의제와 함께 병존하는 경향을 시사한다. 다만 이러한 차이를 정부 기조 변화만으로 단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코로나19·디지털 전환 등 외생적 환경 변화가 함께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H2의 검증 결과를 보다 엄밀하게 기술하면, 가설이 직접 예측한 ‘조직문화·공정성 관련 토픽의 비중 증가’는 통합 LDA 결과상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 토픽 비중 차이가 0.03 이상인 토픽은 T2(교육·여성·청년: -0.040), T5(코로나·방역: +0.037)이며, T8(산업·혁신·데이터: +0.026)은 기준에는 미치지 않으나 상대적으로 큰 변화 폭을 보였다. 조직문화·공정성 관련 의제가 독립 토픽 차원에서 뚜렷한 비중 증가를 보인 것은 아니었다. 이는 H2가 예측한 조직문화·공정성 중심 프레임보다 코로나19 관련 외생충격이 담론 구조 변화에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따라서 H2는 본래 예측한 형태로는 지지되지 않았으며, 조직문화·공정성 관련 의제가 독립적으로 확장되었다기보다 코로나19 대응 및 디

지텔 전환 의제와 함께 결합된 복합 프레임 구조 속에서 부분적으로 관찰되었다고 해석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 이는 공직사회 담론의 프레임 변화에서 정부 정책 기조뿐 아니라 외생적 환경 변화가 함께 작용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3. 구조 수준 분석: 공출현 네트워크의 탐색적 변화 양상(H3 관련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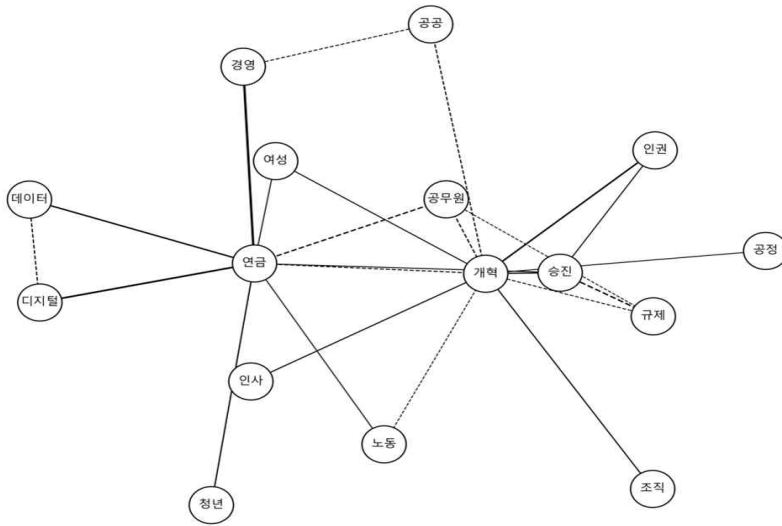
PMI 기반 차별 공출현 분석에서 Δ PMI가 양수인 쌍은 문재인 정부에서 더 강하게 결합된 관계를, 음수인 쌍은 박근혜 정부 시기에서 더 강하게 결합된 관계를 의미한다. Δ PMI 상위 공출현 쌍을 살펴보면, 문재인 정부 시기에는 ‘디지털-연금’, ‘데이터-연금’, ‘개혁-인권’, ‘개혁-여성’, ‘승진-인권’ 등 기존 제도개혁 관련 키워드가 디지털 전환·인권·여성 등 새로운 정책·사회적 의제와 결합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시기에는 기존 제도개혁 관련 키워드가 공정성·인권·디지털 전환 관련 의제와 함께 결합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이는 기존 의제가 소멸하기보다 새로운 정책·사회적 의제와의 관계 속에서 재배치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표 8〉 Δ PMI 상위 10개 공출현 쌍

순위	키워드1	키워드2	Δ PMI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1	경영	연금	1.215	767	1253
2	디지털	연금	1.025	120	521
3	개혁	인권	0.894	1418	4221
4	데이터	연금	0.856	100	363
5	개혁	승진	0.741	738	1429
6	연금	청년	0.675	1091	1611
7	개혁	조직	0.641	5163	9559
8	개혁	인사	0.628	6445	12876
9	개혁	여성	0.576	2092	4292
10	승진	인권	0.575	248	688

문재인 정부 시기에는 기존 제도개혁 관련 키워드가 공정성·인권·디지털 전환 관련 의제와 함께 결합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이는 기존 의제가 소멸하기보다 새로운 정책·사회적 의제와의 관계 속에서 재배치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림 9〉 네트워크 시각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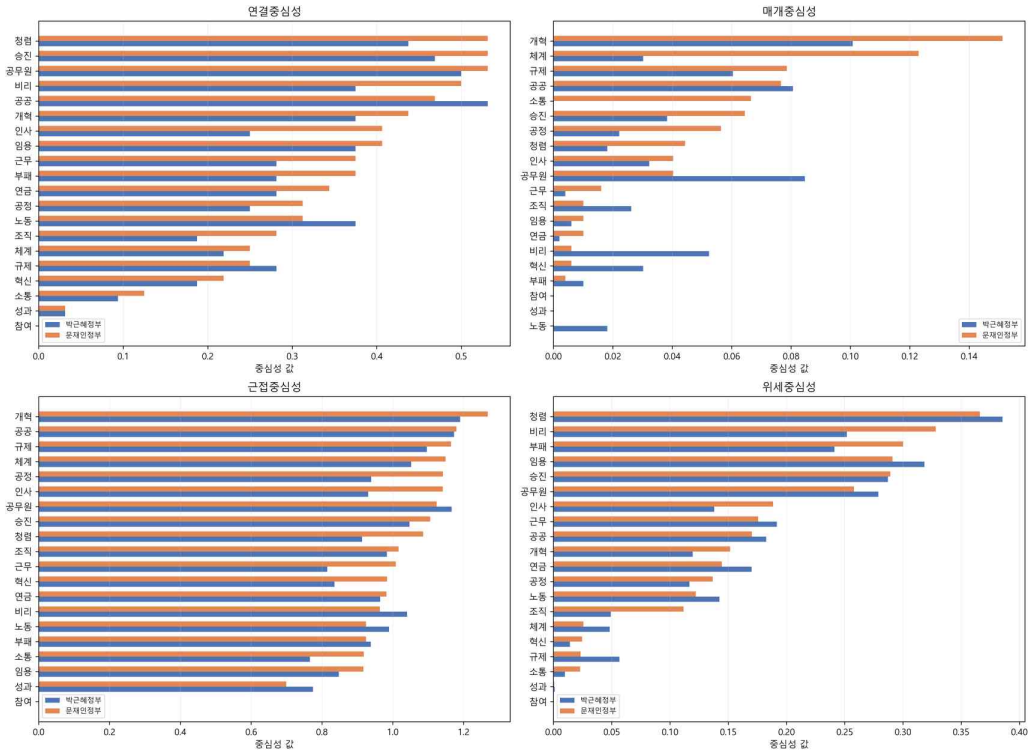


* 실선(양수 ΔPMI): 문제인 정부 강화 / 점선(음수 ΔPMI): 박근혜 정부 강화

문제인 정부 시기에는 공정·디지털 관련 키워드의 중심성이 상대적으로 강화된 반면, 박근혜 정부 시기에는 효율·연금 등 제도개혁 관련 키워드가 중심적 위치를 유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는 일부 기존 제도개혁 관련 의제가 공정성·권리·디지털 전환 관련 의제와 함께 공출현하는 관계 양상이 상대적으로 증가하였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다만 중심성 지표의 전반적 분포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p > 0.05$), 이는 결합 관계의 점진적 변화 가능성을 시사한다.

중심성 분석 결과, 문제인 정부 시기에는 데이터·공정 관련 키워드의 중심성이 상대적으로 증가한 반면, 박근혜 정부 시기에는 효율·예산 등 전통적 행정 운영 관련 키워드의 중심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10〉 정부별 중심성 비교 (연결, 매개, 근접, 위세)



〈표 9〉 중심성 차이 Mann-Whitney U test 결과

중심성 지표	U 통계량	p-value	유의성 검정	평균 차이 (Δ평균)	비고
연결중심성 (Degree)	466.0	0.313	유의미하지 않음	+0.030	문재인 정부 우의
매개중심성 (Betweenness)	549.5	0.954	유의미하지 않음	-0.002	박근혜 정부 우의
근접중심성 (Closeness)	402.0	0.069	유의미하지 않음	+0.076	문재인 정부 우의
위세중심성 (Eigenvector)	561.0	0.837	유의미하지 않음	-0.002	박근혜 정부 우의

주: 전반적인 분포 차이는 유의수준 0.05에서 통계적으로 확인되지 않음($p > 0.05$)

〈표 10〉 중심성 증가/감소 상위 키워드

구분	순위	키워드	△ 연결	△ 매개	△ 근접	△ 위세
중심성 증가 (문제인 정부 강화)	1	데이터	+0.094	0.000	+0.402	+0.001
	2	인사	+0.156	+0.008	+0.210	+0.051
	3	스마트	+0.031	0.000	+0.296	-0.004
	4	공정	+0.063	+0.034	+0.203	+0.020
	5	채용	+0.094	+0.006	+0.147	+0.037
	6	근무	+0.094	+0.012	+0.193	-0.016
중심성 감소 (박근혜 정부 강화)	1	효율	-0.125	-0.216	-0.246	-0.019
	2	예산	-0.031	-0.143	-0.128	-0.013
	3	노동	-0.063	-0.018	-0.065	-0.020
	4	정책	-0.031	-0.028	-0.024	-0.019
	5	공무원	+0.031	-0.044	-0.042	-0.021
	6	성과	0.000	0.000	-0.076	-0.001

이는 의제 중요도의 상대적 변화뿐 아니라 의제 간 결합 관계의 재배치 양상이 함께 나타났음을 시사한다. 즉, 공직사회 담론은 기존 제도개혁 중심 의제가 공정성·권리·기술혁신 관련 의제와 상대적으로 빈번하게 연결되는 경향을 보였다. 다만 이러한 네트워크 차이를 특정 정부의 정책 기조 변화만으로 단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분석 기간 동안 코로나19 팬데믹, 디지털 전환, 세대 구성 변화 등 다양한 외생적 환경 요인이 함께 작용하였으며, 언론 사별 보도 성향 역시 담론 구성 방식에 일정 부분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는 정책 환경과 사회적 맥락이 함께 반영된 담론 변화를 신중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Mann-Whitney U 검정 결과 연결·매개·근접·위세 중심성 모두에서 분포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p>0.05$), 전체 네트워크 구조 수준에서 급격한 구조 전환을 시사하는 결과는 관찰되지 않았다. 이는 상대적으로 제한된 키워드 집합 규모($N=34$)에 따른 검정력 한계와도 관련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개별 키워드 수준에서 ‘데이터’, ‘공정’, ‘인사’ 등의 중심성 증가와 ‘효율’, ‘예산’ 등의 감소 경향은 일관되게 관찰되었으며, 이는 통계적 유의성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분포 검정 한계를 인식한 상태에서 함께 제시되는 탐색적 관찰로 해석된다. ΔPMI 임계값($|\Delta PMI| \geq 0.3$)은 Bouma(2009)에서 의미 있는 공출현 관계 선별에 의미 있는 공출현 관계를 탐색하기 위한 경험적 기준값, 임계값의 민감도 검증은 향후 연구 과제로 남긴다. 따라서 H3은 전체 네트워크 구조의 통계적 전환보다는 특정 의제 결합 관계의 점진적 재배치 양상이 나타났다는 제한적·탐색적 수준의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담론 축이 동일한 강도로 변화한 것은 아니다. 조직문화 담론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결합되는 의제의 양상에서는 변화가 나타났다. 박근혜 정부 시기에는 성과·효율 관련 의제와의 결합이 상대적으로 강했던 반면, 문재인 정부 시기에는 공정·청년·인권 관련 의제와의 결합이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는 공직사회 담론에서 기존 의제가 새로운 사회적 의제와 상대적으로 빈번하게 연결되는 재배치 양상이 나타났음을 시사한다.

4. 코로나19 관련 외생적 환경 변화와 담론 재구성 양상 검토

1) 코로나19 어휘 제거 분석

코로나19 관련 어휘를 불용어에 추가하여 TF-IDF, log-odds, LDA 분석을 재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핵심 키워드와 토픽 구성은 코로나 어휘 제거 이후에도 전반적으로 유사한 경향을 유지하였다. 이는 본 연구의 주요 담론 차이가 단순히 코로나19 관련 어휘의 빈출 효과만으로 해석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 상세 결과는 부록 6에 제시하였다.

2) 3시기 분할 비교: 정부교체 효과와 코로나 효과의 시간적 분리

분석 단위를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전기(코로나19 이전), 문재인 정부 후기(코로나19 이후)의 3시기로 재구성하여 비교하였다. 3시기 분할 분석 결과는 정부교체 시기와 코로나19 이후 시기에 나타난 담론 재구성 양상의 시간적 차이를 시사한다. 첫째, 공정성 담론(19.35→23.18→21.14, per 10,000 tokens)은 코로나19 이전 시기인 문재인 정부 전기부터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둘째, 디지털 전환 담론(11.97→20.04→34.13)은 코로나19 이전부터 증가 경향이 관찰되었으며, 코로나19 이후 시기에는 추가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셋째, 방역·위기대응 담론(14.20→12.61→129.01)은 코로나19 이후 시기에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양상이 관찰되었다. 넷째, 성과주의·NPM 담론(73.74→70.69→65.76)은 세 시기에 걸쳐 점진적 감소 경향을 보였다. 다섯째, 조직문화 담론(37.62→37.43→37.91)은 시기 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담론 변화가 단순한 코로나19 관련 어휘의 빈출만으로 이해되기보다, 정책 환경 변화와 외생적 사회 변화가 서로 다른 시간적 패턴 속에서 함께 나타난 결과로 해석될 가능성을 시사한다(상세 결과: 부록 6·7).

3) 개념군 분석: 누적적 재구성의 내용

개념군 단위 분석 결과, 공정성 담론은 코로나19 이전인 문재인 정부 전기부터 증가 경향이 관찰된 이후 후기에는 소폭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디지털 전환 담론은 코로나19 이후 추가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반면 방역·위기대응 담론은 코로나19 이후 시기에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양상이 관찰되었다. 성과주의·NPM 담론은 점진적 감소 경향을 보였으며, 조직문화 담론은 시기 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공직사회 담론 변화가 단순한 정권 교체나 코로나19 관련 어휘의 일시적 증가만으로 이해되기보다, 기존 의제와 새로운 정책·사회적 의제가 함께 재현되며 점진적으로 재배치되는 양상으로 해석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표 11〉 개념군별 3시기 정규화 빈도

개념군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전기 (코로나 이전)	문재인 후기 (코로나 이후)	변화 패턴
공정성	19.35	23.18	21.14	코로나 이전부터 증가 → 정부교체 효과
디지털 전환	11.97	20.04	34.13	이전부터 증가 + 이후 가속 → 복합 효과
방역·위기대응	14.20	12.61	129.01	코로나 이후만 급증 → 외생충격 효과
성과주의/NPM	73.74	70.69	65.76	3시기 점진 약화 → 담론 재배열
조직문화	37.62	37.43	37.91	변화 미미 → 구조적 지속성

주: 단위: per 10,000 tokens. 기사 수: 박근혜 정부 416,527건, 문재인 전기 339,928건, 문재인 후기 349,294건

V. 결론

본 연구는 2013년부터 2022년까지 공직사회 관련 뉴스 담론을 분석함으로써 박근혜 정부 시기와 문재인 정부 시기별 공직사회 담론의 재구성 양상과 연속성을 탐색적으로 분석하고, 정부교체와 코로나19 외생충격 효과를 비교적으로 검토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코로나19 관련 어휘를 제거한 후에도 핵심 담론 차이가 유지됨으로써, 정부 간 담론 차이가 단순한 어휘 충격이 아닌, 보다 구조적인 담론 재배치 가능성을 시사한다. 둘째, 3시기 분할 분석에서 공정성 담론은 코로나19 이전인 문재인 전기부터 증가한 이후 후기에는 소폭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디지털 전환 담론은 코로나19 이전부터 증가한 이후 코로나19 이후 추가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반면 방역·위기대응 담론은 코로나19 이후에만 급격히 증가하여 코로나19 이후 시기에 상대적으로 집중되는 양상

이 나타났다. 셋째, 성과주의·NPM 담론은 세 시기에 걸쳐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공직사회 담론이 특정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단선적으로 교체되는 것이 아니라, 외생적 사회 변화와 정책 환경 변화가 상호작용하는 과정 속에서 점진적으로 재배치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특히 본 연구는 공직사회 관련 언론 담론이 기존 행정개혁 의제와 새로운 사회적 요구 및 외생적 충격 간 상호작용 속에서 재구성될 가능성을 탐색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행정학 분야의 담론 연구에 대한 텍스트 기반 분석 접근의 활용 가능성을 시사한다. 세 분석은 공통적으로 기존 제도개혁 의제가 새로운 정책·사회적 의제와 재결합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특히 네트워크 분석은 의제 간 결합 관계 변화를 보다 관계 구조 중심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 세 가지 이론적 함의를 제공한다. 첫째, 공직사회 담론 변화는 단순한 정권교체 효과보다 정부교체와 외생충격이 중첩된 누적적 재구성 양상으로 해석될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이는 공직사회 담론 변화를 단선적 패러다임 전환보다 관계 재구성 관점에서 해석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둘째, 네트워크 분석 결과 의제 중요도 변화만으로는 포착되지 않는 의제 재결합 양상이 함께 관찰되었다. 이는 공직사회 담론 분석에서 의제 간 관계 변화 역시 중요한 분석 대상임을 시사한다. 셋째, 공직사회 담론 변화는 정책 기조 변화뿐 아니라 코로나19와 디지털 전환 등 외생적 환경 변화와 함께 나타나는 경향이 관찰되었다. 이는 행정 패러다임 논의에서도 실제 담론 데이터 기반 검증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실무적 측면에서도 몇 가지 시사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정책적 함의를 가진다. 첫째, log-odds 및 공출현 네트워크 분석에서 문재인 정부 시기에 ‘연금-청년’, ‘연금-공정’, ‘개혁-인권’ 등의 키워드 결합이 상대적으로 빈번하게 함께 재현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는 언론이 공직사회 개혁을 단순한 재정 효율화 프레임으로만 재현할 경우, 공정성과 세대 관련 의제를 포괄하지 못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물론 언론 담론의 변화가 실제 공직 구성원의 인식을 직접 반영하는지는 별도의 실증적 검토가 필요하나, 공직제도 개편 논의에서 재정 건전성 외에도 언론 담론에서 제기되는 공정성 및 세대 관련 기대 차이와 같은 의제가 사회적으로 중요하게 논의되고 있음을 언론 담론 수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둘째, LDA 토픽 분석 결과에서 박근혜 정부 시기 담론이 효율화와 성과관리 중심의 비교적 단일한 양상을 보인 반면, 문재인 정부 시기에는 조직문화, 공정성, 위기 대응, 디지털 전환 의제가 병존하는 복합 양상이 나타났다. 이는 언론 담론 수준에서 단일한 효율화·성과관리 프레임이 조직문화·공정성·위기대응 의제를 충분히 포괄하지 못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향후 공직사회 관련 정책 커뮤니케이션은 효율화 메시지 중심 접근을 넘어 공정성, 조직문화, 디지털 전환 등 언론이 부각하는 다양한 의제를 반영한 복합적 프레임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러한 시사점은 언론 담론의 구조적 특성에 기반한 것으로, 실제 공직 구성원의 인식이나 정책 효과와의 연계는 추가 연구로 보완되어야 한다. 셋째, TF-IDF 및 log-odds 분석에서 문재인 정부 시기에 디지털, 플랫폼, 인공지능과 같은 키워드가 공직사회 담론과 함께 재현되는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나아가 디지털 전환이 언론 담론에서 단순한 기술 도입 문제를 넘어 공직사회의 일하는 방식과 조직 경험을 둘러싼 언론 담론과 함께 결합되어 재현되고 있음이 관찰된다. 이는 공공부문 디지털 혁신 정책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기술 인프라 차원을 넘어 조직문화·근무환경 변화와 연결되고 있음을 시사하며, 정책 커뮤니케이션 설계 시 이러한 담론적 연결 구조를 참고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를 지닌다. 첫째, 분석 대상이 10개 언론사에 한정되어 있어 한국 언론 지형 전체를 대표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며, 보수·진보·공영 매체 간 프레임 차이를 별도로 구분하여 검증하지 못하였다. 또한 언론사별 기사량 차이가 시기별 네트워크 양상과 중심성 결과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특정 매체의 입장을 대표한다기보다는 주요 언론 전반에서 나타난 시기별 담론 상대적 차이를 비교적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코로나19 어휘 제거 분석 및 3시기 분할 비교를 통해 외생충격 효과와 정부교체 효과를 시간적으로 분리하였으나, 이는 엄밀한 인과적 식별(causal identification)이 아니다. 코로나19 이후 나타난 담론 변화가 코로나19 자체에 의한 것인지, 혹은 2020년 전후의 부동산 정책 논쟁, 검찰개혁 등 다른 정치·사회적 사건과 함께 형성된 것인지를 명확히 구분하는 데에는 본 연구 설계상 한계가 있다. 또한 개념군 사전 접근은 사전에 정의된 어휘 범위 내에서만 개념군을 포착하므로, 문맥상의 의미를 모두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언론사별 보도 성향, 시기별 외생적 사건의 영향을 보다 체계적으로 통제한 준실험적 설계가 보완될 필요가 있다. 셋째, 토픽 모델링과 네트워크 분석은 해석적 요소를 포함하기 때문에 토픽 수 설정이나 네트워크 임계값 설정에 따라 일부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넷째, 본 연구는 언론 텍스트에서 특정 키워드와 토픽의 출현 빈도와 관계 양상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나, 해당 보도가 공직사회를 우호적으로 재현하는지 또는 비판적으로 재현하는지를 구분하는 감성 분석은 수행하지 못하였다. 동일한 키워드라도 긍정적 맥락과 부정적 맥락에서 상이하게 사용될 수 있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는 담론의 방향성보다는 구조적 특성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언론 보도 텍스트이므로, 분석 결과는 언론이 공직사회를 어떻게 재현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 활용한 개념군(dictionary) 기반 분석은 담론적 가시성을 측정하기 위한 보조적 분석 도구이며, 특정 가치나 조직문화의 실제 수준을 직접 측정하는 것은 아니다. 여섯째, 본 연구에서 분석 대상으로 삼은 ‘공정

성' 담론은 조직 내부 공정성에 한정되지 않으며, 언론 담론에서 사용되는 절차적 공정성, 인사 공정성, 세대 간 공정성, 사회적 공정성을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분석 결과에서 관찰되는 '공정' 키워드의 증가가 어느 유형의 공정성 담론에 해당하는지는 KWIC 분석을 통해 맥락적으로 확인하였으나, 개념적 구분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은 본 연구의 한계이다.

본 연구의 분석 단위는 언론 기사에 나타난 공직사회 관련 담론이며, 실제 공무원의 인식, 태도, 경험 또는 조직문화의 객관적 상태를 직접 측정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공직사회 내부 현실에 대한 직접적 측정보다는, 언론 담론 공간에서 어떠한 의제와 개념군이 상대적으로 부각되고 결합되는지를 보여주는 분석 결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특히 조직문화, 공정성, 성과주의와 같은 개념군은 언론 담론에서의 가시성과 구성 방식을 측정한 것이며, 공무원 개인의 실제 인식 수준을 의미하지 않는다. 향후 연구에서는 설문조사, 심층면접, 행정자료, 이직률 자료 등을 결합하여 언론 담론과 실제 공직사회 내부 경험 사이의 관계를 삼각 검증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구자균·이정옥. (2024). “공무원 이직의도의 영향요인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X세대와 MZ세대 간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조직학회보』, 21(3): 239-271.
- 김지성. (2019). “한국의 일과 삶 균형정책에 대한 미디어담론의 프레임 분석”. 『사회과학연구』, 45(1): 151-176.
- 김진영·이솔빈·이태현·장재윤. (2024). “온라인 리뷰 텍스트 분석을 통한 공무원들의 공직에 대한 장단점 인식: 토픽 모델링에 의한 탐색적 연구”. 『한국인사행정학회보』, 23(4): 129-174.
- 남궁근. (2019).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성과 거버넌스: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의 성과평가를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 28(3): 35-71.
- 노광표. (2015). “공공부문 정상화 정책 진단과 향후 전망”. 『노동리뷰』, 2015(6): 21-35.
- 박순형. (2022). “MZ세대의 특성과 언어 사용 연구”. 『한말연구』, 63(18): 1-23.
- 박지홍. (2012). 「공무원연금개혁의 정책결정과정정에 관한 연구: 윌슨(J. Q. Wilson)의 정책모형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배정숙. (2017). 「공공기관의 정상화 정책 순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정상화 정책 도입시기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서진우·강종수. (2022). “MZ세대 공무원의 이직 의향 결정요인 및 후생복지의 조절효과”. 『인문사

회 21」, 13(6): 2783-2796.

이영미. (2014).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기조의 형성과 변화: 경제민주화와 창조경제 이슈를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 분석”.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8(1): 1-28.

이인원·이영미. (2019). “언어 네트워크 분석기법을 활용한 문재인정부의 가치지향과 정책방향 분석: 100대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한국행정논집」, 31(4): 643-670.

이태준·이승배·오창동. (2017). “원자력 이슈에 대한 정부와 언론의 커뮤니케이션 전략 비교연구: 토픽모델링(Topic Modeling)의 적용”. 「언론과학연구」, 17(3): 172-229.

임주영·박형준. (2015). “정권별 한국 행정개혁 가치 규범의 정합성: 행정개혁의 핵심가치 언어네트워크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49(2): 149-179.

정희정. (2019). “일·생활 균형 및 성평등 현안과 유연근로제의 한계”. 「국제사회보장리뷰」, 2019(봄호, 통권 8호): 49-60.

조영철. (2018).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평가”. 「경제와사회」, 134-157.

황성호. (2023). “MZ세대 공무원의 조직몰입과 이직의도 영향분석: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소속 20~30대 공무원을 중심으로”. 「한국공공관리학보」, 217-251.

Berger, P. L., & Luckmann, T. (1966). *The Social Construction of Reality: A Treatise in the Sociology of Knowledge*. New York: Anchor.

Blei, D. M., Ng, A. Y., & Jordan, M. I. (2003). “Latent Dirichlet Allocation”. *Journal of Machine Learning Research*, 3(Jan): 993-1022.

Bouma, G. (2009). “Normalized (Pointwise) Mutual Information in Collocation Extraction”. *Proceedings of GSCL*, 30: 31-40.

Byrkjeflot, H. (2016). “Healthcare States and Medical Professions: The Challenges from NPM”. In *The Ashgate Research Companion to New Public Management*, pp. 147-159. Routledge.

Chang, J., Gerrish, S., Wang, C., Boyd-Graber, J., & Blei, D. (2009). “Reading Tea Leaves: How Humans Interpret Topic Models”. *Advances in Neural Information Processing Systems*, 22.

Christensen, T. (2012). “Post-NPM and Changing Public Governance”. *Meiji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and Economics*, 1(1): 1-11.

Entman, R. M. (1993). “Framing: Toward Clarification of a Fractured Paradigm”. *Journal of Communication*, 43(4): 51-58.

Fischer, M. (1966). “The KWIC Index Concept: A Retrospective View”. *American Documentation*, 17(2): 57-70.

Foster, K. R. (2016). “Generation as a Politics of Represent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Work Innovation*, 1(4): 375-3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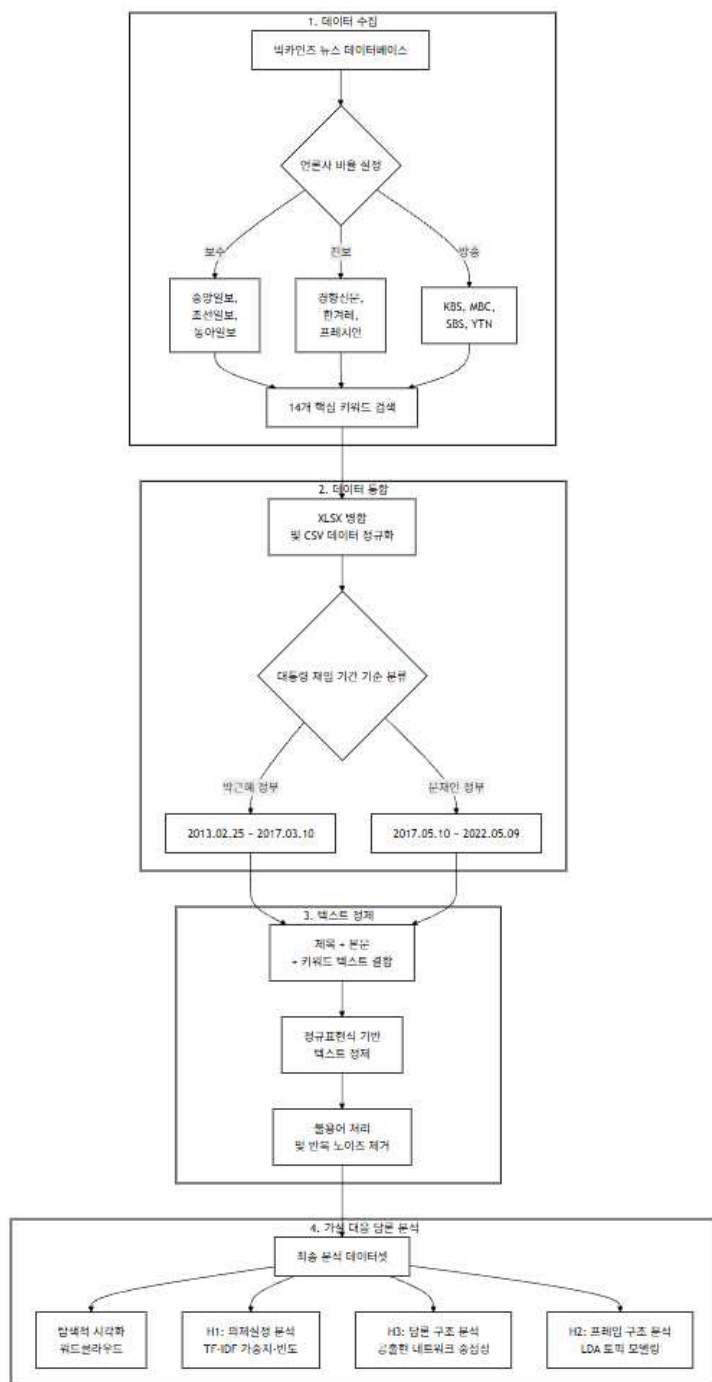
Guo, L., Vu, H. T., & McCombs, M. (2012). “An Expanded Perspective on Agenda-Setting Effects: Exploring the Third Level of Agenda Setting”. *Revista de Comunicación*, (11):

51-68.

- Hajer, M. A. (1993). "Discourse Coalitions and the Institutionalization of Practice: The Case of Acid Rain in Great Britain". In F. Fischer & J. Forester (Eds.), *The Argumentative Turn in Policy Analysis and Planning*, pp. 43-76. Duke University Press.
- Indahsari, C. L., & Raharja, S. U. J. (2020). "New Public Management (NPM) as an Effort in Governance". *Jurnal Manajemen Pelayanan Publik*, 3(2): 73-81.
- Inglehart, R. (1977). "Values, Objective Needs, and Subjective Satisfaction among Western Publics".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9(4): 429-458.
- Jensen, M. C., & Meckling, W. H. (1976). "Theory of the Firm".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3(4): 305-360.
- Joo, S., Lee, K., Nah, W. J., Jeon, S. M., & Joe, D. H. (2020). *The Income-Led Growth in Korea: Status, Prospects and Lessons for Other Countries*. KIEP Research Paper, Policy Analysis, 20-01.
- Jurkiewicz, C. L., & Brown, R. G. (1998). "Generational Comparisons of Public Employee Motivation". *Review of Public Personnel Administration*, 18(4): 18-37.
- Kim, S., & Han, C. (2015). "Administrative Reform in South Korea: New Public Management and the Bureaucracy". *International Review of Administrative Sciences*, 81(4): 694-712.
- Lane, J. E. (2002). *New Public Management: An Introduction*. Routledge.
- Lee, H. J., Oh, H. G., & Park, S. M. (2020). "Do Trust and Culture Matter for Public Service Motivation Development? Evidence from Public Sector Employees in Korea". *Public Personnel Management*, 49(2): 290-323.
- Lee, S. Y., & Kim, S. (2023). "Introduction to the South Korean Civil Service System". In *Handbook on Asian Public Administration*, pp. 105-119. Edward Elgar Publishing.
- Mahoney, J., & Thelen, K. (Eds.). (2010). *Explaining Institutional Change: Ambiguity, Agency, and Power*.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atthews, F. W., & Shillingford, A. D. (1973). "Variations on KWIC". *Aslib Proceedings*, 25(4): 140-152.
- McCombs, M. E., & Shaw, D. L. (1972). "The Agenda-Setting Function of Mass Media". *Public Opinion Quarterly*, 36(2): 176-187.
- Monroe, B. L., Colaresi, M. P., & Quinn, K. M. (2008). "Fightin' Words: Lexical Feature Selection and Evaluation for Identifying the Content of Political Conflict". *Political Analysis*, 16(4): 372-403.
- Moore, M. H. (1997). *Creating Public Value: Strategic Management in Government*. Harvard University Press.
- Nam, J. H. (2016). *The Patterns and Dynamics of the Civil Service Pay Reform in Korea*.

- Doctoral dissertation,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 Osborne, S. P. (2006). *The New Public Governance?* Routledge.
- Parker, R., &Bradley, L. (2000). "Organisational Culture in the Public Sector: Evidence from Six Organisations".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Sector Management*, 13(2): 125-141.
- Park, E. L., &Cho, S. (2014). "KoNLPy: Korean Natural Language Processing in Python". In *Annual Conference on Human and Language Technology*, pp. 133-136. Human and Language Technology.
- Scheufele, D. A. (1999). "Framing as a Theory of Media Effects". *Journal of Communication*, 49(1): 103-122.
- Schmidt, V. A. (2008). "Discursive Institutionalism: The Explanatory Power of Ideas and Discourse". *Annual Review of Political Science*, 11: 303-326.
- Sedano, J. M. (1964). *Keyword-in-Context (KWIC) Indexing: Background, Statistical Evaluation, Pros and Cons, Applications*.
- Sparck Jones, K. (1972). "A Statistical Interpretation of Term Specificity and Its Application in Retrieval". *Journal of Documentation*, 28(1): 11-21.
- Strauss, W., &Howe, N. (1991). *Generations: The History of America's Future, 1584 to 2069*.
- Torring, J., Sørensen, E., &Røiseland, A. (2019). "Transforming the Public Sector into an Arena for Co-creation: Barriers, Drivers, Benefits, and Ways Forward". *Administration & Society*, 51(5): 795-825.
- Williamson, O. E. (1985). *The Economic Institutions of Capitalism*. Free Press.
- Wright, B. E., &Davis, B. S. (2003). "Job Satisfaction in the Public Sector: The Role of the Work Environment". *The American Review of Public Administration*, 33(1): 70-90.
- Yoon, K. S., &Lee, S. Y. (2020). *Policy Systems and Measures for the Social Economy in Seoul* (No. 2020-6). UNRISD Working Paper.

〈부록 1〉 연구 절차



〈부록 2〉 기본 불용어 및 보존어 목록

1. 기본 불용어 선정 원칙

기본 불용어는 조사·접속사·기능어와 같이 분석적 의미가 낮은 단어, 특정 인물·정당·기관명과 같은 고유명사, 뉴스 기사 작성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상투적 표현, 그리고 연구 주제와 직접 관련성이 낮은 일반 사회어를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이러한 기본 불용어는 모든 분석에서 공통적으로 적용하였다.

2. 보존어(KEEP_WORDS)

다음 단어들은 공식사회 구성원의 인식, 감정, 경험, 조직문화, 공정성, 권리 및 책임과 관련된 핵심 개념어로 판단하여 불용어 목록에서 제외하였다.

불안, 공감, 신뢰, 만족, 불만, 태도, 인식, 감정, 느낌, 마음, 경험, 체감, 현실, 개선, 문제, 비판, 공정, 공정성, 차별, 권리, 인권, 책임, 자율, 위계, 수직, 수평

3. 기본 불용어 목록

3.1 정치 및 기관명

정부, 국가, 제도, 위원회, 부처, 국회, 장관, 대통령, 청와대, 서울시, 의원, 기자, 위원, 위원장, 관계자, 단체, 기관, 본부, 발표, 회의, 예산, 조사, 보고서, 언론, 나라, 시장

3.2 정치인 및 정당명

윤석열, 윤석열, 김건희, 이재명, 조국, 문재인, 박근혜, 박원순, 이명박, 국민의힘,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국회, 혁신당, 민주, 진보, 보수, 더불어, 애국,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정의당, 민주통합당, 미래통합당, 국민의당, 공화당, 진보당, 민주평화당, 통합당, 미래당

3.3 지명 및 지역명

한국, 대한민국, 서울, 일본, 대만, 지방, 강진군, 전국, 인천, 부산, 대구, 광주, 제주, 울산, 경북, 경남, 강원, 강원도, 충남, 전북, 경기도, 여의도, 호남, 워싱턴, 뉴욕, 도쿄, 베이징, 싱가포르, 러시아, 프랑스, 이라크, 시리아,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이란, 호주, 브라질, 이탈리아

아, 터키, 파리, 중동, 유럽, 미국, 중국, 북한, 영국, 독일, 인도

3.4 기능어·상투어·기사 작성용 표현

관련, 통해, 의견, 논의, 방안, 지적, 확대, 요구, 대상, 중요, 사실, 입장, 시작, 처리, 위해, 대한, 이번, 내용, 진행, 참석, 설명, 확인, 결과, 현재, 부분, 이유, 이전, 경우, 때문, 정도, 이후, 당시, 가운데, 방식, 과거, 실제, 핵심, 발언, 노력, 상태, 방향, 효과, 포함, 요청, 지속, 수행, 대비, 기준, 활동, 영향, 작업, 관심, 주요, 최고, 전체, 이름, 자리, 시각, 직접, 그동안, 계획, 생각, 얘기, 이야기, 검토, 이용, 기반, 설계, 공개, 현황, 목표, 사용, 분야, 기간, 수준, 가능, 가능성, 강조, 파악, 원인, 기본, 비교, 일반, 등장, 소개, 제공, 활용, 목적, 실적, 형태, 비중, 차이, 여부, 단계, 방법, 사례, 자료, 기록, 보고, 질문, 배포, 일정, 현장, 준비, 공식, 취지, 반영, 소식, 올해, 해석, 추천, 적용, 선정, 확보, 제시, 작성, 제출, 답변

3.5 사건·사고 및 일반 뉴스용어

사건, 사안, 피해자, 성폭력, 성희롱, 비서, 비서실, 투표, 선거, 대선, 탄핵, 쏫불, 법안, 검찰, 심판, 수사, 혐의, 재판, 고발, 기소, 판결, 선고, 구속, 심의, 심사, 처벌, 불법, 형사, 처분, 감찰, 특검, 공수처, 공수처법, 검경, 검수완박, 대장동, 드루킹, 미투, 화천대유, 세월호, 참사, 성추행, 폭행, 범행, 화재, 사망자, 자살, 간첩, 내란, 내란음모, 해산, 위조, 감염, 감염증, 확진, 병상, 변이, 오미크론, 백신, 마스크, 신천지, 방역당국, 위중증,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세

3.6 역사·의례·국가보훈 관련어

전쟁, 호국, 현충일, 독립운동, 독립운동가, 태극기, 유공, 보훈, 희생, 광복, 평화, 선언, 올림픽, 역사, 민주주의, 문화재, 관광

3.7 일반 사회어 및 일상어

학교, 학생, 학생들, 아이, 아이들, 유치원, 부모, 친구, 친구들, 급식, 가족, 노인, 지역, 부담, 주민, 주민들, 도시, 교사, 교과서, 학부모, 청년들, 사람, 사람들, 시민, 시민들, 남성, 남자, 여자, 엄마, 아내, 남편, 어머니, 아버지, 아들, 자녀, 주인공, 삶, 행복, 기억, 세상, 인생, 자연, 가정, 건강, 음식, 치료, 치료제, 병원, 환자, 의사, 입학, 졸업, 수업, 시험, 학년도, 전형, 면접, 수능, 공부, 영어, 수학

3.8 산업·경제·기술·문화·스포츠 일반어

경기, 수출, 투자, 제품, 금융, 서비스, 기업, 삼성, 현대, 현대차, 삼성전자, 브랜드, 마케팅, 소비자, 구매, 주식, 코스피, 증권, 거래, 금리, 대출, 펀드, 상장, 보험, 배터리, 반도체,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콘텐츠, 플랫폼, 모바일, 메타버스, 카카오, 구글, 애플, 아마존, 네이버, 테슬라, 쿠팡, 유튜브, 넷플릭스, 화웨이, 알파고, 로봇, 스타트업, 에너지, 전기차, 원전, 공급

3.9 정치·사회 이슈 고유명사 및 시사 인물

노무현, 김영삼, 노태우, 이승만, 김일성, 김정일, 김기춘, 안철수, 최순실, 정윤희, 안종범, 조윤선, 정유라, 원세훈, 이석기, 정진석, 남재준, 정종섭, 안대희, 정의화, 유병언, 황우여, 윤창중, 현오석, 최룡해, 문창극, 황교안, 유승민, 우병우, 반기문, 추미애, 정세균, 이정현, 홍준표, 남경필, 김종인, 김한길, 최경환, 김무성, 김영란, 이준석, 나경원, 김경수, 이혜찬, 임종석, 김여정, 박범계, 정경심, 김학의, 김병준, 양승태, 송영길, 심상정, 홍남기, 한동훈, 박지원, 안희정, 강경화, 김동연, 이낙연, 오세훈, 푸틴, 바이든, 볼턴, 폼페이오, 파월, 시진핑, 스가, 류현진, 손흥민, 김연아

3.10 기타 일반 불용어

뉴스, 오늘, 어제, 내일, 앵커, 앵커멘트, 인터뷰, 방송, 리포트, 보도, 기자회견, 촬영기자, 사회자, 멘트, 바탕, 근거, 전문, 개별, 각종, 긍정적, 최선, 도움, 필요, 기대, 고민, 인정, 정상, 집중, 특별, 주목, 최근, 지난, 지난해, 지난달, 내년, 하루, 요즘, 마지막, 처음, 자체, 어디, 무엇, 모든, 가장, 우리, 우리나라, 같은, 함께, 전면, 지속적, 별도, 유일, 절반, 중심, 본격적, 완전, 정확한, 아래, 바랍니다, 있을, 있다, 있는, 합니다, 있습니다, 것으로, 밝혔다, 말했다

〈부록 3〉 조건부 불용어 및 분석별 적용 규칙

1. 조건부 불용어 선정 원칙

조건부 불용어는 두 정부 시기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높은 빈도로 등장하지만, 특정 시기의 고유한 담론 차별성을 설명하기보다는 행정 일반어 또는 배경어로 기능할 가능성이 높은 단어를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이러한 단어들은 탐색적 분석에서는 유지하되, 시기별 차별성 검증은 목적으로 하는 분석에서는 제외하였다.

2. 조건부 불용어 목록

평가, 정책, 운영, 추진, 인사, 참여, 여성, 수소, 클라우드, 블록체인, 바이오, 공급망, 모빌리티

3. 분석별 적용 규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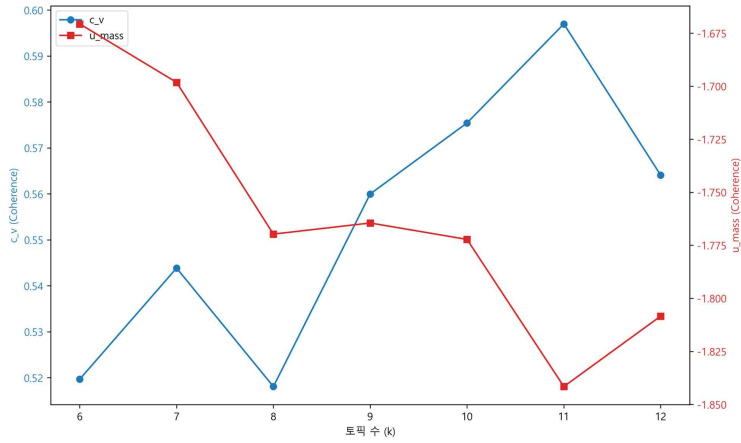
분석 기법	기본 불용어 적용	조건부 불용어 적용
워드클라우드	적용	미적용
LDA 토픽모델링	적용	미적용
TF-IDF	적용	적용
log-odds	적용	적용

4. 적용 이유

워드클라우드와 LDA 분석은 담론의 전반적 흐름과 주제 분포를 탐색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정책’, ‘평가’, ‘운영’, ‘인사’, ‘참여’, ‘여성’ 등과 같은 공통 행정어를 유지하였다. 또한 ‘수소’, ‘클라우드’, ‘블록체인’, ‘바이오’, ‘공급망’, ‘모빌리티’와 같은 기술·산업 일반어 역시 특정 시기 정부 정책 및 산업 전략 기사에서 폭넓게 등장하며 담론의 외연과 정책 환경을 보여줄 수 있으므로 탐색적 분석에서는 유지하였다. 반면 TF-IDF 및 log-odds 분석은 시기별 차별적 단어를 식별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이러한 단어들이 특정 정부의 고유한 공직사회 담론을 반영하기보다 공통 행정 배경어 또는 정책·산업 배경어로 기능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조건부 불용어로 제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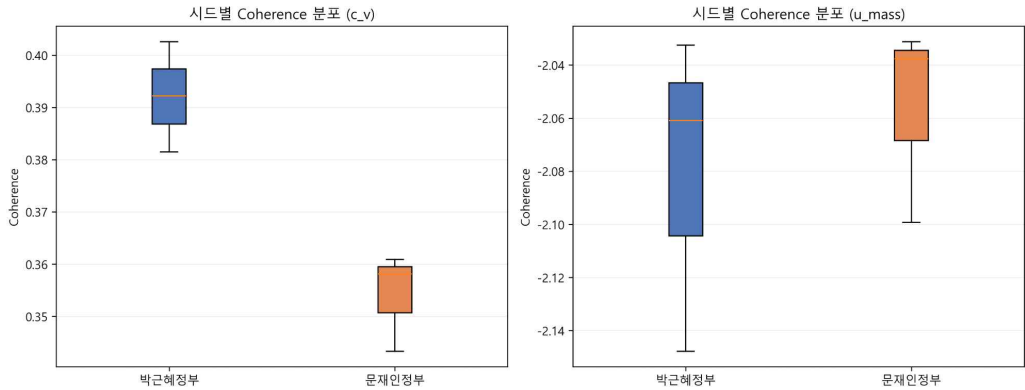
〈부록 4〉 LDA 토픽 모델링 검증 결과

4-1. 토픽 수(k)에 따른 coherence 점수 비교 (c_v, u_ma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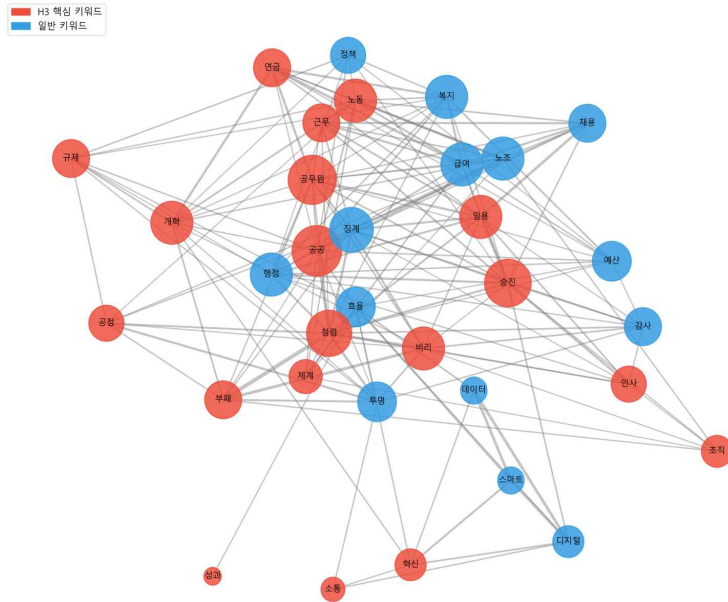
4-2. 시드별 coherence 분포 비교 (c_v, u_mass)

LDA 시드 민감도 분석 (seeds: [42, 123, 7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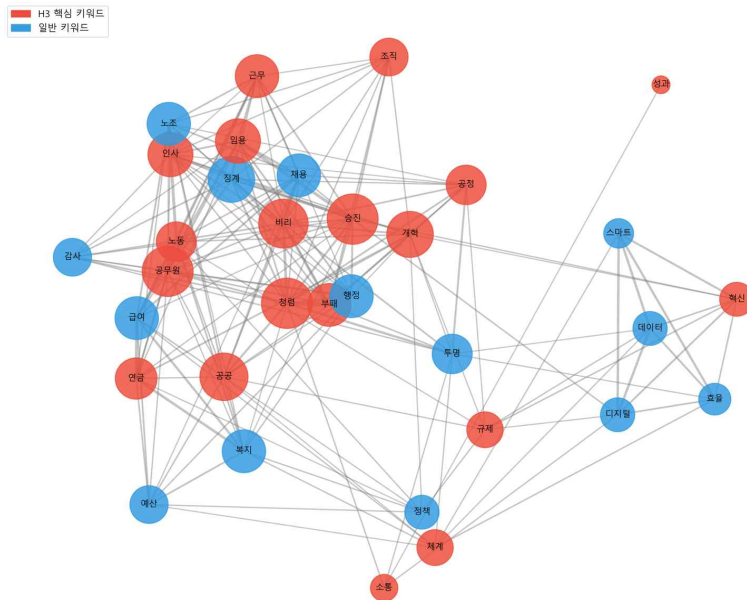


〈부록 5〉 각 정부 공출현 네트워크 (FMI ≥ 0.3)

5-1. 박근혜 정부 공출현 네트워크 (PMI ≥ 0.3)



5-2. 문재인 정부 공출현 네트워크 (PMI ≥ 0.3)



〈부록 6〉 코로나19 어휘 제거 강건성 검사 결과

6-1. 코로나 어휘 제거 전후 TF-IDF 상위 키워드 비교

원분석 순위	키워드	박근혜 TF-IDF	문재인 TF-IDF	원분석 중요도합	코로나제거 순위	박근혜 (제거후)	문재인 (제거후)	제거후 중요도합	유지	순위 변화
1	평가	0.02142	0.02142	0.04284	1	0.02142	0.02142	0.04284	예	0
2	공무원	0.01878	0.01492	0.03369	2	0.01878	0.01492	0.03369	예	0
3	정책	0.01354	0.01860	0.03215	3	0.01354	0.01860	0.03215	예	0
4	청년	0.01197	0.01396	0.02593	4	0.01197	0.01396	0.02593	예	0
5	교육	0.01297	0.01146	0.02443	5	0.01297	0.01146	0.02443	예	0
6	혁신	0.01214	0.01224	0.02438	6	0.01214	0.01224	0.02438	예	0
7	추진	0.01088	0.01288	0.02376	7	0.01088	0.01288	0.02376	예	0
8	인사	0.01111	0.01211	0.02323	8	0.01111	0.01211	0.02323	예	0
9	여성	0.01053	0.01224	0.02277	9	0.01053	0.01224	0.02277	예	0
10	운영	0.01077	0.01180	0.02257	10	0.01077	0.01180	0.02257	예	0
11	일자리	0.00973	0.01232	0.02205	11	0.00973	0.01232	0.02205	예	0
12	산업	0.00852	0.01268	0.02120	12	0.00852	0.01268	0.02120	예	0
13	조직	0.01143	0.00950	0.02093	13	0.01143	0.00950	0.02093	예	0
14	참여	0.00958	0.01042	0.02000	14	0.00958	0.01042	0.02000	예	0
15	비판	0.00896	0.01076	0.01972	15	0.00896	0.01076	0.01972	예	0
16	정보	0.00959	0.00984	0.01944	16	0.00959	0.00984	0.01944	예	0
17	성장	0.00870	0.01073	0.01943	17	0.00870	0.01073	0.01943	예	0
18	관리	0.00924	0.00991	0.01915	18	0.00924	0.00991	0.01915	예	0
19	성과	0.00937	0.00947	0.01884	19	0.00937	0.00947	0.01884	예	0
20	개혁	0.01048	0.00835	0.01884	20	0.01048	0.00835	0.01884	예	0

주: 원분석 상위 100개 키워드 전체가 코로나 어휘 제거 후에도 동일 순위로 유지됨 (유지율 1.000)

6-2. 코로나 어휘 제거 전후 log-odds 상위 키워드 비교

원분석 순위	키워드	원분석 방향	원분석 z-score	코로나제거 순위	제거후 방향	제거후 z-score	유지	방향성 유지	순위 변화
1	코로나	문재인	302.82	—	—	—	아니오	아니오	—
2	확진자	문재인	126.93	—	—	—	아니오	아니오	—
3	방역	문재인	115.57	—	—	—	아니오	아니오	—
4	접종	문재인	113.08	—	—	—	아니오	아니오	—
5	플랫폼	문재인	93.97	1	문재인	94.51	예	예	-4
6	디지털	문재인	74.67	2	문재인	75.23	예	예	-4
7	연금	박근혜	-71.44	3	박근혜	-70.82	예	예	-4
8	소상공인	문재인	66.93	4	문재인	67.29	예	예	-4

9	주택	문재인	64.21	5	문재인	65.00	예	예	-4
10	인공지능	문재인	61.25	6	문재인	61.68	예	예	-4
11	뉴딜	문재인	60.47	7	문재인	60.75	예	예	-4
12	데이터	문재인	60.12	8	문재인	60.63	예	예	-4
13	임금피크제	박근혜	-58.01	9	박근혜	-57.84	예	예	-4
14	모빌리티	문재인	54.62	10	문재인	54.87	예	예	-4
15	팬데믹	문재인	54.30	—	—	—	아니오	아니오	—
16	종부세	문재인	54.27	11	문재인	54.51	예	예	-5
17	공정	문재인	53.75	12	문재인	54.38	예	예	-5
18	공무원연금	박근혜	-52.82	13	박근혜	-52.63	예	예	-5
19	정책	문재인	50.56	14	문재인	51.89	예	예	-5
21	화폐	문재인	50.07	17	문재인	50.38	예	예	-4

주: 순위 20(‘텍스트는’)은 형태소 분석 과정에서 발생한 아티팩트로 제외하였다. 원분석 상위 100개 중 코로나 관련 어휘 10개 제거 후 90개 유지(유지율 0.900), 유지된 90개 키워드의 정부 방향성 전부 일치(일치율 1.000)

6-3. 코로나 어휘 제거 강건성 요약

분석 방법	비교 대상	안정성 지표	값
TF-IDF	원분석 상위 100개 vs. 코로나 어휘 제거 후	상위 키워드 유지율	1.000 (100/100개)
log-odds	원분석 상위 100개 vs. 코로나 어휘 제거 후	상위 키워드 유지율	0.900 (90/100개)
log-odds	유지된 상위 90개 키워드	정부 방향성 일치율	1.000 (90/90개)
LDA	동일 토픽 공간 정부 간 비중 차이	토픽 비중 차이 평균 변화	0.002미만
LDA	동일 토픽 공간 정부 간 비중 차이	토픽 비중 차이 최대 변화	0.010미만

주: LDA는 전체 1,105,749건 중 200,000건 표본(random seed=42) 기반. 코로나 제거 필터 어휘 목록은 부록 표 6-4 참조

6-4. 코로나 어휘 제거 필터: 추가 제거 어휘 목록(21개) 및 기존 불용어 포함 어휘(11개)

구분	어휘 목록
코로나 필터 추가 제거 (21개)	코로나, 코로나19, 확진자, 방역, 접종, 거리두기, 사회적거리두기, 자가격리, 집합 금지, 팬데믹, 위드코로나, 중대본, 중앙방역대책본부, 질병관리청, 재난지원금, 비대면, 델타, 백신접종, 봉쇄, 신종코로나,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기존 불용어 포함 (11개)	감염, 감염증, 격리, 마스크, 바이러스, 방역당국, 백신, 신종, 오미크론, 코로나바이러스, 확진

주: 기존 불용어에 이미 포함된 11개는 코로나 필터에서 중복 제거되지 않으며, 실제 추가 제거된 어휘는 21개임

〈부록 7〉 3시기 분할 분석 결과

7-1. 3시기 분할 기사 수 현황

시기	분석 기간	기사 수	비율(%)
박근혜 정부	2013.02.25 – 2017.03.10	416,527건	37.7%
문재인 전기 (코로나 이전)	2017.05.10 – 2019.12.31	339,928건	30.8%
문재인 후기 (코로나 이후)	2020.01.01 – 2022.05.09	349,294건	31.6%
합계	2013.02.25 – 2022.05.09	1,105,749건	100.0%

주: 두 정부 인수인계 기간(2017.03.10-2017.05.10) 기사는 분석에서 제외함

7-2. 3시기 TF-IDF 상위 키워드 비교

순위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전기 (코로나 이전)	문재인 후기 (코로나 이후)
1	평가 (0.0219)	평가 (0.0209)	코로나 (0.0646)
2	공무원 (0.0196)	정책 (0.0167)	평가 (0.0199)
3	교육 (0.0136)	일자리 (0.0149)	정책 (0.0171)
4	정책 (0.0132)	혁신 (0.0129)	공무원 (0.0170)
5	혁신 (0.0122)	교육 (0.0124)	확진자 (0.0159)
6	조직 (0.0121)	산업 (0.0122)	청년 (0.0147)
7	청년 (0.0120)	공무원 (0.0122)	방역 (0.0137)
8	인사 (0.0112)	인사 (0.0120)	여성 (0.0122)
9	개혁 (0.0111)	청년 (0.0120)	추진 (0.0122)
10	운영 (0.0107)	여성 (0.0116)	접종 (0.0117)
11	여성 (0.0107)	추진 (0.0115)	주택 (0.0114)
12	추진 (0.0106)	성장 (0.0113)	운영 (0.0114)
13	참여 (0.0096)	운영 (0.0108)	인사 (0.0114)
14	정보 (0.0096)	개혁 (0.0106)	비판 (0.0110)
15	성과 (0.0096)	성과 (0.0103)	교육 (0.0108)
16	일자리 (0.0095)	개선 (0.0100)	산업 (0.0106)
17	관리 (0.0092)	규제 (0.0099)	혁신 (0.0101)
18	비판 (0.0090)	참여 (0.0098)	논란 (0.0100)
19	논란 (0.0088)	조직 (0.0096)	참여 (0.0099)
20	개선 (0.0086)	정보 (0.0093)	관리 (0.0097)
21	성장 (0.0086)	비판 (0.0091)	조직 (0.0095)
22	책임 (0.0082)	논란 (0.0090)	정보 (0.0093)
23	연금 (0.0081)	관리 (0.0089)	성장 (0.0088)
24	산업 (0.0080)	역할 (0.0086)	판단 (0.0088)
25	의미 (0.0078)	의미 (0.0086)	직원 (0.0086)
26	직원 (0.0078)	전략 (0.0083)	일자리 (0.0084)

27	역할 (0.0074)	판단 (0.0079)	활용 (0.0083)
28	전략 (0.0072)	임금 (0.0077)	플랫폼 (0.0081)
29	마음 (0.0071)	활용 (0.0076)	개선 (0.0081)
30	경영 (0.0070)	주택 (0.0075)	디지털 (0.0080)

주: 문재인 후기의 1위 '코로나' (0.0646)는 박근혜 정부 및 문재인 전기와 비교하여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임. 문재인 전기 상위 구조는 박근혜 정부와 상당 부분 유사하면서도 '일자리', '산업' 등 정책 기조 변화가 관찰됨

7-3A. 3시기 log-odds 비교: 코로나 후기 변화 키워드(문재인 전기 vs. 후기)

순위	키워드	강화 시기	전기 빈도	후기 빈도	log-odds z
1	코로나	문재인 후기	64	496,066	+398.77
2	확진자	문재인 후기	302	92,926	+171.25
3	방역	문재인 후기	1,751	82,551	+157.30
4	접종	문재인 후기	1,136	73,964	+150.14
5	감염병	문재인 후기	1,436	20,582	+73.11
6	팬데믹	문재인 후기	7	16,078	+71.47
7	임금	문재인 전기	56,320	22,350	-70.32
8	뉴딜	문재인 후기	2,036	20,481	+69.75
10	일자리	문재인 전기	107,638	62,843	-63.53
11	최저임금	문재인 전기	23,690	5,495	-61.41
12	디지털	문재인 후기	23,528	52,947	+60.71
13	개혁	문재인 전기	77,260	41,573	-60.46
17	감염자	문재인 후기	316	10,753	+56.07
18	재택근무	문재인 후기	382	10,410	+54.59
19	유행	문재인 후기	4,424	18,927	+54.09
21	비대면	문재인 후기	370	10,067	+53.67
22	플랫폼	문재인 후기	25,564	51,557	+53.37
23	재난지원금	문재인 후기	32	8,436	+51.52
25	블랙리스트	문재인 전기	13,036	3,169	-44.71
26	개혁	문재인 전기	77,260	41,573	-60.46

주: 음수 z값은 문재인 전기에서 상대적으로 강화된 키워드를 의미함. '자사고' 등 교육정책 고유명사는 공직사회 담론과의 관련성이 낮아 제외하였다.

7-3B. 3시기 log-odds 비교: 정부교체 선행 변화 키워드(박근혜 정부 vs. 문재인 전기)

순위	키워드	강화 시기	박근혜 빈도	전기 빈도	log-odds z
1	플랫폼	문재인 전기	8,117	25,564	+64.22
2	일자리	문재인 전기	77,945	107,638	+62.70
3	최저임금	문재인 전기	7,314	23,690	+62.63
4	혁신성장	문재인 전기	87	10,239	+61.68
5	인공지능	문재인 전기	7,349	23,106	+61.00
7	소득주도성장	문재인 전기	168	7,963	+53.55
8	공무원	박근혜 정부	154,617	87,065	-53.34
11	블록체인	문재인 전기	158	7,048	+50.29
12	산업	문재인 전기	74,053	94,051	+49.96
13	규제	문재인 전기	48,576	67,347	+49.90
16	데이터	문재인 전기	13,873	26,922	+47.90
18	갑질	문재인 전기	3,913	13,138	+47.39
20	모빌리티	문재인 전기	322	6,516	+46.74
28	연금	박근혜 정부	59,651	28,660	-44.44
29	소상공인	문재인 전기	3,291	11,271	+44.27
46	협치	문재인 전기	3,736	11,203	+41.51
47	정책	문재인 전기	151,147	162,040	+41.04
24	행정처	문재인 전기	622	6,912	+45.70
55	공정	문재인 전기	25,970	37,229	+39.18
79	디지털	문재인 전기	14,614	23,528	+36.67

주: '김영철', '김상조', '송영무' 등 정치·외교 인명은 공식사회 담론과의 직접 관련성이 낮아 제외하였다. 공정, 갑질, 디지털 등 공식사회 담론 관련 키워드는 코로나19 이전인 문재인 전기부터 이미 강화되었음을 시사한다.

7-3C. 3시기 log-odds 비교: 누적 변화 키워드(박근혜 정부 vs. 문재인 후기)

순위	키워드	강화 시기	박근혜 빈도	전기 빈도	log-odds z
1	코로나	문재인 후기	165	496,066	+433.90
2	확진자	문재인 후기	1,414	92,926	+183.78
3	방역	문재인 후기	2,962	82,551	+168.75
4	접종	문재인 후기	1,395	73,964	+163.18
5	플랫폼	문재인 후기	8,117	51,557	+113.75
6	디지털	문재인 후기	14,614	52,947	+97.69
7	뉴딜	문재인 후기	661	20,481	+84.40
8	소상공인	문재인 후기	3,291	25,152	+82.31
9	주택	문재인 후기	41,550	79,815	+81.03
10	팬데믹	문재인 후기	18	16,078	+77.76

11	연금	박근혜 정부	59,651	17,322	-73.73
12	감염병	문재인 후기	3,202	20,582	+72.04
14	데이터	문재인 후기	13,873	34,279	+64.60
17	비대면	문재인 후기	153	10,067	+60.45
18	공정	문재인 후기	25,970	47,339	+59.26
19	개혁	박근혜 정부	90,234	41,573	-58.89
20	재택근무	문재인 후기	641	10,410	+57.96
22	인공지능	문재인 후기	7,349	21,438	+56.27
56	임금피크제	박근혜 정부	8,124	174	-45.08
76	공무원연금	박근혜 정부	8,257	577	-41.90

주: 순위 16('텍스트는')은 형태소 분석 과정에서 발생한 아티팩트로 제외하였다. 음수 z값은 박근혜 정부에서 상대적으로 강화된 키워드임

7-4. 3시기 LDA 토픽 비중 비교

토픽	해석 라벨	상위 키워드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전기	문재인 후기	정부교체 선행	코로나 후기	누적 변화	지배적 유형
T0	행정운영·인사관리	공무원, 관리, 운영, 추진, 행정, 공사, 승진, 인사	0.103	0.092	0.099	-0.012	+0.008	-0.004	정부교체 선행
T1	정책·규제·재정 이슈	주택, 정책, 규제, 성장, 세금, 추진, 평가, 공공	0.072	0.080	0.087	+0.008	+0.008	+0.015	정부교체 선행
T2	생활·경험 관련 보도	마음, 여성, 경험, 느낌, 의미, 화제	0.106	0.093	0.085	-0.013	-0.008	-0.021	정부교체 선행
T3	산업혁신·플랫폼·경쟁력	산업, 혁신, 성장, 활용, 경영, 전략, 경쟁력	0.095	0.121	0.117	+0.026	-0.004	+0.022	정부교체 선행
T4	코로나19·방역·보건	코로나, 의료, 확진자, 방역, 접종, 관리	0.067	0.065	0.122	-0.002	+0.057	+0.054	코로나 후기
T5	성과·전략 중심 행정	평가, 의미, 성과, 행동, 조직, 전략	0.138	0.136	0.102	-0.003	-0.034	-0.037	코로나 후기
T6	정책비판·개혁·책임성	정책, 비판, 개혁, 인사, 평가, 논란, 책임	0.157	0.161	0.163	+0.003	+0.002	+0.005	정부교체 선행
T7	교육·인재·역량	교육, 평가, 운영, 인재, 능력, 참여	0.098	0.084	0.067	-0.014	-0.017	-0.031	코로나 후기
T8	일자리·노동·고용	일자리, 청년, 여성, 노동자, 임금, 고용	0.070	0.073	0.063	+0.003	-0.010	-0.007	코로나 후기
T9	정보·절차·조직운영	정보, 판단, 행위, 공무원, 조직, 직원	0.092	0.095	0.096	+0.004	+0.000	+0.004	정부교체 선행

주: '정부교체 선행'은 박근혜→문재인 전기 변화가 더 큰 경우, '코로나 후기'는 문재인 전기→후기 변화가 더 큰 경우. T3(산업혁신·플랫폼)은 문재인 전기부터 비중이 크게 증가하여 정부교체 효과가 선행됨

7-5. 키워드 효과 분해: 정부교체 선행 효과 vs. 코로나 후기 효과

키워드	효과 유형	TF-IDF 정부교체 선행	TF-IDF 코로나 후기	TF-IDF 누적	log-odds 정부교체 선행	log-odds 코로나 후기	log-odds 누적
코로나	코로나 후기 급증	-0.00001	0.06464	0.06463	-3.05	+398.77	+433.90
확진자	코로나 후기 급증	-0.00019	0.01588	0.01569	-13.23	+171.25	+183.78
방역	코로나 후기 급증	-0.00018	0.01336	0.01318	-6.54	+157.30	+168.75
접종	코로나 후기 급증	-0.00003	0.01144	0.01142	-0.30	+150.14	+163.18
플랫폼	누적적 재구성	+0.00308	0.00386	0.00695	+64.22	+53.37	+113.75
주택	누적적 재구성	+0.00224	0.00396	0.00620	+34.08	+45.25	+81.03
디지털	누적적 재구성	+0.00184	0.00402	0.00586	+36.67	+60.71	+97.69
연금	전반적 약화	-0.00383	-0.00186	-0.00568	-44.44	-30.96	-73.73
개혁	전반적 약화	-0.00047	-0.00457	-0.00503	+3.42	-60.46	-58.89
소상공인	누적적 재구성	+0.00164	0.00275	0.00439	+44.27	+41.49	+82.31
정책	정부교체 선행	+0.00348	0.00040	0.00389	+41.04	+7.93	+49.42
뉴딜	누적적 재구성	+0.00033	0.00326	0.00358	+17.93	+69.75	+84.40
공정	정부교체 선행	+0.00210	0.00144	0.00354	+39.18	+19.46	+59.26
감염병	코로나 후기 급증	-0.00027	0.00378	0.00350	-11.35	+73.11	+72.04
팬데믹	코로나 후기 급증	0.00000	0.00339	0.00339	0.00	+71.47	+77.76
데이터	정부교체 선행	+0.00235	0.00070	0.00305	+47.90	+16.65	+64.60
교육	전반적 약화	-0.00121	-0.00158	-0.00279	-8.70	-15.84	-25.10
인공지능	정부교체 선행	+0.00336	-0.00061	0.00275	+61.00	-5.01	+56.27
청년	코로나 후기 급증	-0.00002	0.00275	0.00272	+2.96	+25.57	+29.74
조직	전반적 약화	-0.00248	-0.00011	-0.00259	-21.53	+0.77	-20.80
공무원	혼합 패턴	-0.00735	0.00478	-0.00257	-53.34	+40.01	-12.38
산업	정부교체 선행	+0.00418	-0.00167	0.00252	+49.96	-10.00	+39.63
월성	코로나 후기 급증	-0.00007	0.00255	0.00248	-3.61	+51.08	+52.27
복지	전반적 약화	-0.00227	-0.00014	-0.00241	-37.51	-3.03	-40.63
비대면	누적적 재구성	+0.00006	0.00232	0.00238	+6.66	+53.67	+60.45
종부세	누적적 재구성	+0.00063	0.00174	0.00237	+32.92	+43.30	+69.71
화상	코로나 후기 급증	-0.00008	0.00233	0.00225	-3.84	+47.37	+47.94
기후	누적적 재구성	+0.00012	0.00214	0.00225	+3.90	+44.20	+50.62
판단	정부교체 선행	+0.00135	0.00088	0.00222	+32.13	+8.45	+41.02
물량	누적적 재구성	+0.00043	0.00176	0.00218	+12.07	+36.45	+49.93

주: '정부교체 선행'은 박근혜→문재인 전기 log-odds z. '코로나 후기'는 문재인 전기→후기 z. '누적'은 박근혜→문재인 후기 전체 z

7-5A. 정부교체 선행 변화 키워드(코로나 이전부터 나타난 변화)

키워드	효과 유형	TF-IDF 정부교체 선행	TF-IDF 코로나 후기	TF-IDF 누적	log-odds 정부교체 선행	log-odds 코로나 후기	log-odds 누적
플랫폼	누적적 재구성	+0.00308	+0.00386	+0.00695	+64.22	+53.37	+113.75
주택	누적적 재구성	+0.00224	+0.00396	+0.00620	+34.08	+45.25	+81.03
디지털	누적적 재구성	+0.00184	+0.00402	+0.00586	+36.67	+60.71	+97.69
소상공인	누적적 재구성	+0.00164	+0.00275	+0.00439	+44.27	+41.49	+82.31
정책	정부교체 선행	+0.00348	+0.00040	+0.00389	+41.04	+7.93	+49.42
뉴딜	누적적 재구성	+0.00033	+0.00326	+0.00358	+17.93	+69.75	+84.40
공정	정부교체 선행	+0.00210	+0.00144	+0.00354	+39.18	+19.46	+59.26
데이터	정부교체 선행	+0.00235	+0.00070	+0.00305	+47.90	+16.65	+64.60
인공지능	정부교체 선행	+0.00336	-0.00061	+0.00275	+61.00	-5.01	+56.27
산업	정부교체 선행	+0.00418	-0.00167	+0.00252	+49.96	-10.00	+39.63
비대면	누적적 재구성	+0.00006	+0.00232	+0.00238	+6.66	+53.67	+60.45
중부세	누적적 재구성	+0.00063	+0.00174	+0.00237	+32.92	+43.30	+69.71
기후	누적적 재구성	+0.00012	+0.00214	+0.00225	+3.90	+44.20	+50.62
판단	정부교체 선행	+0.00135	+0.00088	+0.00222	+32.13	+8.45	+41.02
물량	누적적 재구성	+0.00043	+0.00176	+0.00218	+12.07	+36.45	+49.93
가상	누적적 재구성	+0.00093	+0.00122	+0.00215	+32.24	+24.27	+55.62
모빌리티	정부교체 선행	+0.00139	+0.00076	+0.00215	+46.74	+19.27	+62.09
공급망	누적적 재구성	+0.00020	+0.00193	+0.00213	+12.18	+45.35	+55.38
활용	정부교체 선행	+0.00141	+0.00070	+0.00211	+24.88	+15.01	+40.62
비판	누적적 재구성	+0.00015	+0.00183	+0.00199	+8.23	+18.94	+28.08

주: '정부교체 선행' 유형은 정부교체 선행 변화(log-odds z)가 코로나 후기 변화보다 큰 키워드. '누적적 재구성'은 두 효과가 모두 양수인 키워드

7-5B. 코로나 이후 급변 키워드(코로나 이후에만 나타난 변화)

키워드	효과 유형	TF-IDF 정부교체 선행	TF-IDF 코로나 후기	TF-IDF 누적	log-odds 정부교체 선행	log-odds 코로나 후기	log-odds 누적
코로나	코로나 후기 급증	-0.00001	+0.06464	+0.06463	-3.05	+398.77	+433.90
확진자	코로나 후기 급증	-0.00019	+0.01588	+0.01569	-13.23	+171.25	+183.78
방역	코로나 후기 급증	-0.00018	+0.01336	+0.01318	-6.54	+157.30	+168.75
접종	코로나 후기 급증	-0.00003	+0.01144	+0.01142	-0.30	+150.14	+163.18
감염병	코로나 후기 급증	-0.00027	+0.00378	+0.00350	-11.35	+73.11	+72.04
팬데믹	코로나 후기 급증	0.00000	+0.00339	+0.00339	0.00	+71.47	+77.76
청년	코로나 후기 급증	-0.00002	+0.00275	+0.00272	+2.96	+25.57	+29.74
화상	코로나 후기 급증	-0.00008	+0.00233	+0.00225	-3.84	+47.37	+47.94
유행	코로나 후기 급증	-0.00027	+0.00238	+0.00211	-8.13	+54.09	+50.82

감염자	코로나 후기 급증	-0.00030	+0.00228	+0.00198	-15.33	+56.07	+51.87
재택근무	코로나 후기 급증	-0.00005	+0.00196	+0.00191	-2.98	+54.59	+57.96
기본소득	코로나 후기 급증	-0.00002	+0.00191	+0.00190	-2.21	+44.998	+46.59
등교	코로나 후기 급증	-0.00014	+0.00192	+0.00179	-8.23	+53.99	+53.56
비대면	누적적 재구성	+0.00006	+0.00232	+0.00238	+6.66	+53.67	+60.45
중립	코로나 후기 급증	-0.00001	+0.00215	+0.00214	+2.16	+43.86	+48.71
월성	코로나 후기 급증	-0.00007	+0.00255	+0.00248	-3.61	+51.08	+52.27
공직자	코로나 후기 급증	-0.00030	+0.00187	+0.00157	-3.44	+26.03	+23.97
의료진	코로나 후기 급증	-0.00012	+0.00168	+0.00156	-2.11	+39.16	+39.82
전염병	코로나 후기 급증	-0.00013	+0.00151	+0.00138	-5.67	+38.54	+36.92
보건	코로나 후기 급증	-0.00065	+0.00195	+0.00130	-13.32	+36.30	+25.09

주: '주호영', '원희룡', '후보가', '서울시장', '대선후보' 등 선거·정치 관련 키워드는 공직사회 담론과의 직접 관련성이 낮아 제외하였다. '공직자', '의료진', '보건' 등 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정에서 공직사회와 직접 연관된 키워드를 포함하였다.

7-6. 개념군별 3시기 정규화 빈도

개념군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전기 (코로나 이전)	문재인 후기 (코로나 이후)	정부교체 선행 변화	코로나 후기 변화	코로나 이전 증가	지배적 변화 유형
공정성	19.35	23.18	21.14	+3.83	-2.04	Y	정부교체 선행
디지털 전환	11.97	20.04	34.13	+8.08	+14.09	Y	누적적 재구성
방역·위기 대응	14.20	12.61	129.01	-1.60	+116.40	N	코로나 후기 급증
성과주의/NPM	73.74	70.69	65.76	-3.05	-4.93	N	전반적 약화
조직문화	37.62	37.43	37.91	-0.19	+0.48	N	구조적 지속성

주: 기사 수: 박근혜 정부 416,527건 / 문재인 전기 339,928건 / 문재인 후기 349,294건. '공정성' 담론은 코로나19 이전인 문재인 전기부터 이미 증가하여 정부교체 효과가 선행됨. '방역·위기 대응'은 코로나19 이후에만 급증하여 외생충격 효과가 뚜렷함

7-7. 개념군 사전 구성

개념군	포함 어휘 수	구성 논리 (핵심 개념)	사전 어휘 전체 목록
공정성	22개	공정·평등·차별·투명성· 채용비리	공정, 공정성, 공채, 균등, 기회균등, 불공정, 불평등, 블라인드채용, 비리, 비정규직, 정규직, 정의, 차별, 채용, 채용비리, 투명, 투명성, 특권, 특혜, 평등, 형평, 형평성
디지털 전환	22개	디지털·데이터·플랫폼· AI·전자정부	AI, 뉴딜, 데이터, 디지털, 디지털뉴딜, 디지털전환, 디지털정부, 메타버스, 모바일, 블록체인, 비대면, 빅데이터, 스마트, 스마트정부, 알고리즘, 온라인, 인공지능, 자동화, 전자정부, 정보화, 클라우드, 플랫폼

방역·위기 대응	25개	코로나·방역·감염병·재난·위기	감염, 감염병, 거리두기, 격리, 긴급재난지원금, 대응, 마스크, 방역, 백신, 비상, 사회적거리두기, 위기, 자가격리, 재난, 재난지원금, 접종, 중대본, 중앙방역대책본부, 질병관리청, 코로나, 코로나19,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 확진, 확진자
성과주의/NPM	22개	성과·효율·평가·구조조정·민영화	KPI, 개혁, 경영, 경쟁, 관리, 구조조정, 목표, 민영화, 보상, 생산성, 성과, 성과급, 성과주의, 성과평가, 시장화, 실적, 책임, 책임성, 평가, 혁신, 효율, 효율성
조직문화	26개	위계·소통·위라벨·직장내괴롭힘	갈등, 갑질, 괴롭힘, 근무, 근무환경, 문화, 상급자, 세대갈등, 소통, 수평, 수평적, 업무, 업무환경, 위라벨, 위계, 위계질서, 유연근무, 일과삶, 재택근무, 조직, 조직문화, 직원, 직장, 직장내괴롭힘, 하급자, 회식

주: 개념군 간 어휘 중복이 없음을 검증하였다 (concept_term_overlap_audit.csv 참조). 단, 의미상 중복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며 이를 분석의 한계로 인정한다.

ABSTRACT

Reconfiguring the Civil Service Discourse in Korean Media: An Analysis of Changes in Agenda and Relational Structures during the Park and Moon Administrations

Song Gayoung & Jeong Jisu

This study analyzes the relational structure and temporal reconfiguration of civil service-related discourse represented in Korean media from 2013 to 2022 using news data from BigKinds. The analysis is based on 1,105,749 news articles related to the civil service and employs a combination of TF-IDF analysis, LDA topic modeling, and PMI-based co-occurrence network analysis to compare agenda-level, frame-level, and structural-level differences in a multi-layered manner. The findings indicate that media discourse during the Park Geun-hye administration exhibited relatively higher salience of institutional reform and performance management agendas, whereas discourse during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more frequently featured issues related to COVID-19 response, digital transformation, and fairness. In addition, not only the dominant agendas but also the core agenda relational configurations showed notable changes across the periods. Further analyses revealed that fairness- and digital transformation-related discourse had already begun to increase prior to the COVID-19 pandemic, whereas quarantine and crisis-response discourse increased sharply after the outbreak of COVID-19. Moreover, several core discourse differences remained even after COVID-19-related terms were removed from the analysi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civil service-related media discourse was not simply characterized by the replacement of existing institutional reform agendas, but rather by a gradual reconfiguration through the interaction of existing and emerging policy and social agendas.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analyzes changes in public sector discourse not simply as shifts in policy agendas, but as processes of recombination among agendas.

【Keywords: civil service discourse, BigKinds, text mining, topic modeling, co-occurrence network】